

제434회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임시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임시회의록)

제 1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6년4월6일(월)

장 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2217938)
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나. 해양수산부 소관
다. 산림청 소관
라. 해양경찰청 소관
2. 2026년도 농지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7945)
3. 2026년도 축산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7946)
4. 2026년도 농산물가격안정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7947)
5. 2026년도 수산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7948)

상정된 안건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2217938) 1
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나. 해양수산부 소관
다. 산림청 소관
라. 해양경찰청 소관
2. 2026년도 농지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7945) 2
3. 2026년도 축산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7946) 2
4. 2026년도 농산물가격안정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7947) 2
5. 2026년도 수산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7948) 2

(10시11분 개의)

○소위원장 송옥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 소위원회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해서 그 결과를 오후 전체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효율적인 추경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2217938)

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나. 해양수산부 소관

다. 산림청 소관

라. 해양경찰청 소관

2. 2026년도 농지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7945)

3. 2026년도 축산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7946)

4. 2026년도 농산물가격안정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7947)

5. 2026년도 수산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7948)

(10시12분)

○소위원장 송옥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 4건의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안건 심사는 해양경찰청·산림청·해양수산부·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순으로 하겠습니다. 심사 방식은 배부해 드린 소위원회 심사자료에 사업별로 전문위원의 설명과 정부 측의 의견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거쳐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배석하고 계신 분이 답변을 하는 경우 원활한 회의 진행과 속기록 작성을 위하여 소속, 직위, 성함을 먼저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해양경찰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추가경정예산안 등 심사를 위하여 정부 측에서 장인식 해양경찰청장직무대행께서 출석하셨습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 주요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현종 해양경찰청, 소위 심사자료 1번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장비기술국 소관 사업은 1건의 증액 요구사업이 있습니다.

함정유류관리사업 중 내역사업인 함정유류구입사업은 함정용 경유 공급단가의 급증이 예상되므로 유류비 300억 원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송옥주 다음은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경찰청장직무대행 장인식 해양경찰청 차장 장인식입니다.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송옥주 다음은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선 위원님.

○임호선 위원 300억 원 내역이 어떻게 돼요?

○해양경찰청장직무대행 장인식 거기 표에 보시면 저희가 1075억이 편성돼 있는데요. 지금 3월까지 362억을 집행했습니다. 남은 잔액이 713억입니다. 저희 해경이 필요한 유류가 7만 8116㎥인데 3월까지 2만 5286㎥를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5만 2830㎥인데요, 이 5만 2830㎥에 최고가격인 1923원을 곱하게 되면 1013억이 필요한데 1013억 빼기……

○임호선 위원 아니, 그러면 연말까지 문제없겠어요?

○해양경찰청장직무대행 장인식 예.

○임호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송옥주 혹시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조승환 위원님.

○조승환 위원 차장님, 제가 지적만 해 드리는데 이런 거는 당연히 정부 예산에 담겨서 올라와야 되는 거지 국회에서 증액 요구할 예산의 성격은 아닌데 좀 각별히, 부처 간의 협의나 문제가 있었겠지만 이런 예산은 다 정부 예산에 담겨서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해양경찰청장직무대행 장인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송옥주 지금 마이크가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좀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문금주 위원 해경에서는 요구했겠지, 기재부에서 반영을 안 해 준 거지.

○소위원장 송옥주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해양경찰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금까지 심사하여 조정한 대로 증액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부적인 자구와 금액 등의 사항에 대해서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해양경찰청장직무대행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인사말씀이 있네요. 잠깐 앉아 계셔야 될 것 같아요.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해양경찰청장직무대행님 간단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경찰청장직무대행 장인식 존경하는 송옥주 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해양경찰청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 의결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송옥주 해양경찰청장직무대행님과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산림청장 및 관계 직원들이 착석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추가경정예산안 등 심사를 위하여 정부 측에서 박은식 산림청장께서 출석하셨습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 주요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현중 산림청, 소위 심사자료 2번입니다.

5건의 증액 요구사업이 있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산림산업정책국 소관입니다.

1번 산림사업종합자금 사업 중 내역사업인 기존·신규 대출에 대한 이차보전 사업은 경영난을 겪고 있는 임업인에게 추가로 융자 지원을 하기 위하여 이차보전액 1억 2300만 원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2번 임업·산림공익직접지불금사업 중 내역사업인 직접지불금 지급사업은 농업인 간의 형평성을 위하여 임업직불금 단가 인상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83억 7300만 원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3번 임업기능인 양성사업 중 신규 내역사업인 임업용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한시지원 사업은 유가 상승에 대한 부담 완화를 위해 8억 3000만 원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신규 내내역사업인 이동식 대용량 열처리장비 구입 사업은 소나무재선충병 등 피해목의 열처리에 필요한 장비 구입을 위하여 7억 4200만 원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4번 임도시설 사업 중 신규 내내역사업인 정밀임도망도 구축 사업은 임도관리의 고도화를 위하여 67억 2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산림재난통제관실 소관 사업입니다.

5번 산림재해일자리 사업 중 신규 내역사업인 청년산림재난대응단 사업은 소나무재선충병 훈증더미 제거를 위한 청년과 소외계층의 일자리 사업으로 210억 3200만 원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상 증액 요구 사업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소위원장 송옥주 다음은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장 박은식 전부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송옥주 다음은 위원님들 혹시 의견 있으시면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서천호 위원님.

○서천호 위원 5개 항목인데 사실상 이번 추경 편성의 기준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는 게 지금 제가 보기에는 하나밖에 없어요. 3-1 항목인데,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한시지원 부분은 이게 8억이 됐든 80억이 됐든 필요하다면 해야 되는데 나머지 부분은 사실 일상적인 부분이잖아요. 그렇지요? 일상적인 부분이고, 이것 지금 꼭 이렇게 추경 편성을 해서 해야 될 일이 있나.

특히나 뒤에 보면, 마지막 항목에 보면 청년산림재난대응단 부분인데 이 부분은 뒤에 보면 전부 다 운영비 부분이고. 운영비, 피복·임차·교육·물품 이런 걸 포함해서 이렇게……

아까 존경하는 조승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본예산에 넣어서 포함시켜 해야 되는 내용들이 많은데 이것 추경에 이렇게 넣어야 될 이유가 있는지 설명을 한번 해 주시지요.

○산림청장 박은식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유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추경에, 설득력이 많이 있는데 민생 부분도 추경의 요인 중 하나입니다. 특히 임업인들이 여러 가지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민생 지원 차원에서 추경에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입니다.

○서천호 위원 아니, 민생이 어려운 건 임업인뿐만 아니라 다 어렵잖아요. 소상공인도 어렵고 농어민들도 어렵고 다 어렵지요. 그러면 전 국민을 상대로 해서 추경을 편성해야 되는데 그게 추경이 아니라 본예산이거든. 그렇잖아요.

○산림청장 박은식 민생 부분 중에서 또 저희 임업적으로……

○서천호 위원 그러니까 특별히 이 추경에 포함을 시켜야 될 그런 항목이, 3번 항목 빼고 필요성에 대해서 몇 가지 한번 언급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산림청장 박은식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 1번하고 2번 같은 경우는 사실 임업인들이 현장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내용들인데 유가 상승이라든지 재료 원가 상승 등으로 인해서 굉장히 압박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임업 경영의 측면에 지원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3-2 같은 경우도 산림 복구 현장에서, 지금 경북지역 산림 피해 복구를 진행하다 보니까 자원을 좀 더 가치 있게 쓰면 산주들에게 돌아가는 이익이 있겠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이렇게 수용 의견을 내게 됐습니다.

그리고 임도의 정밀지도 부분도 임도가 산사태 원인이다 이런 부분들이 여러 차례 많이 지적되고 있어서 그것을 올해부터 시급하게 당겨서 하면 좋겠다라는 의견이었고요.

그다음에 산림재해 일자리 부분은 청년층, 특히 농산촌 지역의 청년들이 여러 가지 일자리 기회라든지 또 재선충 피해목 자체가 산불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시급성도 있고 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항공유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유가 상승에 연동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당위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였습니다.

○김선교 위원 그러면 정부에서 답아서 와야지 여기 와서…… 왜 그것을 못 담았어요?

○산림청장 박은식 정부 측에서 설명을 좀 했는데 여러 가지로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도와주시면 좀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선교 위원 충분히 설명을 해 가지고 와야지. 이렇게 해 갖고 예산 세워 주겠어요, 각 부처가 다 이렇게 해서 올 텐데?

○산림청장 박은식 최대한 더 열심히 해서 최종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송옥주 임호선 위원님.

○임호선 위원 존경하는 서천호 위원님 말씀 주신 것에 이어서 말씀드리면, 1-1 같은 경우에는 적은 증액 가지고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어서 어느 정도 수궁을 한다 하더라도, 2-1 같은 경우는 농식품부 비진흥지역 발농업직불금 인상 수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왜 반영이 안 됐었지요?

○산림청장 박은식 작년도 본예산 할 때, 올해 본예산 할 때도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원래 제도 설계 자체가 임업직불금 단가는 농업직불금 중 비진흥지역 발농업직불금 수준의 70%로 설계가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농업 부분의 직불금 단가가 상향이 됐는데 임업 부분은 연동돼서 상향이 안 돼서 임업인들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불평 등하다라는 의식이 있었는데 작년도에 사실 여러 차례 설명도 했습니다.

○임호선 위원 오케이.

그러면 이것은 이번 추경 말고 내년 본예산에 담을 수 있는 사안 아닌가요?

○산림청장 박은식 물론 그렇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올해 추경에 담게 되면 올해부터 공백 없이 이렇게…… 또 특히 어렵기 때문에, 임업인들이 전쟁 등으로 인해서 경영 압박이 많아지니까 올해 지원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가지고 수용 의견을 냈습니다.

○임호선 위원 여기서 지금 대상 인원이 몇 명 정도 돼요?

○산림청장 박은식 1만 9000건 정도 됩니다. 2만 건 조금 못 됩니다. 1만 9600건 정도 됩니다.

○임호선 위원 2만 건이 조금 못 된다? 하여튼 그런 의견을 좀 드리고.

3-2 있잖아요. 3-2의 피해목…… 이거 장비 구입 예산이잖아요?

○산림청장 박은식 예.

○임호선 위원 1대에 7억을 한다는 얘기에요?

○산림청장 박은식 예.

○임호선 위원 그런데 이동식 대용량 열처리장비 1대 구입해 가지고, 이게 아무리 이동식이라지만 전국을 커버할 수가 없고. 적어도 권역별로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러면 1대가 아니라 예를 들어 크게 경북이나 강원이나 또 경남, 대형 산불이 나는 데에 예를 들어서 한 2대씩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내년 본예산에 담는 게 바람직한 것 아닌가요? 1대 7억 지금 추경에 담는 게 추경 성격하고도 조금 맞지 않을 뿐더러 내용도 너무 미흡한 것 같은데 차라리 몇 대 더…… 꼭 필요한 예산이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거든요. 이것을 운영하는 것까지 해서 조금 더 정치하게 설계를 해 가지고 내년 본예산에다가 담았으면 하는 생각이라는 말씀 드리고.

4-1 같은 경우도 꼭 필요한 사업이기는 한데 이것도 내년 본예산에 담으면 안 돼요?

○산림청장 박은식 2건 한꺼번에 말씀을 드리면요 앞에 이동식 대용량 열처리장비는 사실 주문 제작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많이 제작하기 어렵고 또 지금 7m 길이의 나뭇가지를 한꺼번에 넣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것까지 진행 가능 한데 이것을 12m까지, 좀 더 큰 나무를 넣어서 처리할 수 있는 장비를 만들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범사업 성격으로 갖고 있고요.

○임호선 위원 시범사업 성격이라고요?

○산림청장 박은식 예. 그런데 산주들 피해가 계속…… 올해 가고 내년 가면 3년 정도 되면 서 있는 나무들, 산불 피해목들의 처리에 한계가 오기 때문에 올해 추경에 반영해서 1대를 먼저 해 보고 그다음에 본예산 때 추가로 확장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임호선 위원 그러면 시범사업으로 1대 담고 내년 본예산에 더 추가로 해서 담을 계획인 거지요?

○산림청장 박은식 예, 그럴 구상이었습니다.

○임호선 위원 이해했습니다.

○소위원장 송옥주 더 이상 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김선교 위원 3페이지에 임도시설 있지요. 2026년도 본예산하고 추경안 금액이 같은데 이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산림청장 박은식 추경은 정부안을 뜻하는 겁니다.

○김선교 위원 정부안이다?

○산림청장 박은식 예.

○김선교 위원 그러면 이 1854억을 다 쓸 수가 있어요, 1년에?

○산림청장 박은식 전체적으로 1년에 한 1000km 가까이 임도를 늘려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도 예산은 지금 다 쓰고도, 사실은 현장에서는 부족하다는 의견입니다. 지금 1854억 돼 있는 것은 임도를 개설하는 내용들이고, 내역사업으로 들어 있다 보니까 임도사업 안에 포함돼 있습니다.

○김선교 위원 그거를 그렇게 급한 것마냥 1회 추경에 반영한다는 게 의문이 가는데요.

○산림청장 박은식 위원님 지적은 타당하신 면이 있는데 저희는……

○김선교 위원 다 써 보지도 않고.

○산림청장 박은식 이것은 임도 개설하는, 설치하는 비용이고요. 이번 추경 때 나온 것은 기존에 있는 임도들에 대한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정밀지도를 제작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김선교 위원 예산안도 26조인가밖에 없는데 이런 것을 갖다가, 전쟁 추경이라고 말은 그래 놓고 이게 전쟁 추경입니까?

○산림청장 박은식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송옥주 조승환 위원님.

○조승환 위원 정부에 있어 본 사람으로서 드리는 말씀인데 결국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추경에 들어올 성격의 건은 아까 서천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 건밖에 없어요. 한 건밖에 없는데, 산림청 입장에서 이 사업들이 이 추경을 위해서 급조된 사업인지 아니면 25년에 26년 본예산 하면서 반영을 못 시켜서 가져온 사업인지 그것에 대한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내가 이것을 안 해 주겠다, 반대하겠다 이게 아니라 얼마만큼 디테일하게 검토가 돼 있는 건지. 예를 들면 지금 제가 딱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동식 대용량 열처리장비 구입이라고 해서 이동식인데 그러면 12m짜리 나무가 들어갈 수 있는 이동식이라고 한다면 그냥 러프하게 생각했을 때 기본적으로 12m가 들어가고 십몇 m가 나올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36m 장비라는 거지요. 이게 이동식이 되는 건지, 그냥 이걸 내가 추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제대로 검토하고 지금 올린 건지 그것만 확인해 주세요.

○산림청장 박은식 이것 검토 필요성은 오래전부터 느꼈습니다. 특히 임도 같은 경우는……

○조승환 위원 전부 다?

○산림청장 박은식 예, 전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임도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산사태가 하도 많이 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필요성을 갖고 있었는데 정부 본예산 철이 지나 가지고 이렇게 부득이하게 내게 됐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12m인데, 쉽게 말하면 캐비닛 형태의 창고처럼 나무를 넣었다 꺼내는 것이기 때문에 길이는 12m 정도 됩니다.

○임미애 위원 잠깐 관련해서……

○소위원장 송옥주 임미애 위원님.

○임미애 위원 제가 비고에 보니까 제 이름만 있어 가지고요 설명을 잠깐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산불이 난 지역의 소나무를 다 베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나무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파쇄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산불 피해지역에서 피해가 발생한 이 피해목인 소나무를 가지고 다시 가공해서 목재로 사용하고자 하는데 문제는 이것을 이동할 수가 없습니다, 재선충 때문에. 그래서 현장에 두고서 재선충을 없애고 건조를 하는 기능 요구가 산불 피해지역에서는 굉장히 많은데 그것을 할 수 있는 장비가 현재 7m 정도 들어가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쓰고 있는데 7m니까 나무를 다 잘라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목재로 가공하는 데 한계가 있어서 이것을 사찰이나 한옥을 복원하는 데는 좀 길이가 있는, 규모가 있는 것을 설치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요구가 있었고. 그래야만이 산불 피해목을 현장에서 재선충도 없애고 건조도 하는 기능으로 해서 목재로 재가공을 할 수 있도록 쓸 수 있겠다라는 산불 피해지역의 요구로 편성된 예산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송옥주 논의는 충분히 하신 것 같고요. 산림청장께서는 위원님들 하시는 데 좀 더 절실하게 이게 왜 꼭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보니까 5페이지에 있는 부대의견 관련된 부분들은 말씀을 안 하셨네요.

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현중 5페이지입니다.

2건의 부대의견이 있습니다, 첫째 ‘산림청은 임업용 면세유 카드시스템 도입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둘째 ‘산림청은 항공유 구입 예산에 대하여 산불 발생 추세, 헬기 가동률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보다 정확한 수요 예측을 통해 안정적인 본예산 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송옥주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장 박은식 2건 모두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송옥주 위원님들 의견 있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림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금까지 심사하여 조정한 대로 증액 의결하고 임업기능인 양성 및 산림헬기 도입·운영, 2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부대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부적인 자구와 금액 등의 사항에 대해서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산림청장님 간단히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장 박은식 존경하는 송옥주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26년도 산림청 소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을 앞으로 잘 반영해서 본예산 편성이나 또 예산 집행 과정에서 더욱더 충실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

앞으로 산림청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수호하고 국민행복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송옥주 청장님과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해양수산부차관 및 관계 직원들이 착석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추가경정예산안 등 심사를 위하여 정부 측에서 김성범 차관이 출석하셨습니다.

그러면 추경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주요 내용을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해양수산부 관련 2026년도 1회 추경안에 대해서는 증액 요구사업 17건, 증·감액 동시 요구사업 1건이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위원님들과 정부 의견이 다른 사업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의 3번입니다.

수산금융자금 이차보전과 관련하여 3-1을 보시면 에너지·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들의 경영 부담 완화 등을 위하여 10개 수산정책자금 금리 1%p 인하 지원에 필요한 이차보전 지원액 325억 1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원양선사의 한시적인 경영자금 금리 인하 지원에 필요한 20억 80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고 아랫부분의 해양수산부는 원양선사의 한시적인 경영자금 금리 인하 지원 요청액은 이차보전 지원액에 포함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325억 1000만 원 일부 수용 의견입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4-1을 보시면 취약계층 수산식품 바우처 신규 사업 반영을 위한 110억 원 증액 의견과 그 아랫부분의 221억 원 증액 의견에 대해 정부는 221억 원 일부 수용 의견입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어업인 면세경유 유가연동보조금 한시지원에 관련하여 6-1을 보시면 6-1은 어업인 면세경유 유가연동보조금 한시지원을 위한 416억 원 증액 의견과 그리고 아래 6-2는 795억 원 증액 의견 그리고 6-3은 276억 증액 의견이 있고 이에 대해서 정부는 416억 일부 수용 의견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6-4를 보시면 전남지역 양식장 및 종묘생산장, 휘발유 사용 어선 등에 대해 317억 28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고 그 아래 보시면 부산지역 연근해어선에 대해 경유·휘발유를 포함한 면세유의 유가연동보조금 지원을 위한 20.8억 원 증액 의견이 있고 이에 대해서 정부는 59억 수정 수용 의견입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연안화물선 유류비 보조와 관련해서 유가연동보조금은 경유·중유에 대한 유가연동보조금 615억 2300만 원 증액 그리고 유류세보조금은 25년도 유류세 인상으로 25년에 지급하지 못한 유류세보조금 23억 3500만 원 증액 의견 그리고 유류세보조금 23억 3500만 원 증액 그리고 유가연동보조금 26억 68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고 이에 대해 정부는 415억 4600만 원 수정 수용 의견입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연안여객선 유가연동보조금 한시지원과 관련하여 중동 상황 유가급등에 따라 연안여객선사 운항비용 부담 경감을 위한 한시적 유가연동보조금 도입을 위해 106억 원 반영 의견에 대해 정부는 70억 6600만 원 수정 수용 의견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연안여객선 유류비 인상분 지원과 관련하여 13-1을 보시면 전남지역 여객선사들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35억 원 반영 의견과 그 아래에 경북지역에 대한 22억 6000만 원 반영 의견이 있고 이에 대해 정부는 2개를 합쳐서 78억 1300만 원 수정 수용 의견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4번입니다.

광양항 항만물류 비상 대응 지원사업 관련 중동 상황 유가급등에 따라 광양항 항만물류 기업 유류비 부담 경감을 위해 130억 5000만 원 반영 의견에 대해 정부는 104억 8200만 원 수정 수용 의견입니다.

국적선박 피해 긴급지원 관련 미-이란 전쟁으로 인해 국적선박 26척이 호르무즈해협에 갇혀 있어서 각종 손실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선사 지원을 위해서 657억 원 반영 의견이 있고 이에 대해 정부는 148억 원 수정 수용 의견입니다.

18페이지입니다.

수산연구시설 및 선박관리 관련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수산과학조사선의 안정적인 운항을 위해 유류비 49억 5600만 원 증액 의견에 대해 정부는 19억 7600만 원 수정 수용 의견입니다.

다음 페이지는 증·감액 동시 요구 사업입니다.

먼저 1-1을 보시면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 사업에 200억 원 증액 의견과 이에 대해서 대기업과 소비여력이 있는 중산층 이상에 혜택이 쏠리는 문제점 등으로 인해서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 사업의 추정예산 300억 원 전액 감액 의견이 있고 이에 대해 정부는 200억 원 증액 일부 수용 의견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송옥주 다음은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차관 김성범 전체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요? 지금 전문위원 설명한 부분은 그렇게 저희들 수정의견 드리고요, 나머지는 증액 요구안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송옥주 다음은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선 위원 하나하나 살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증액 요구 사업 건건이?

○소위원장 송옥주 대체로 위원님들께서 내신 증액요구안에 정부 측과 전문위원이 동의하는 부분들과 관련해서는 이의가 없으신 것 같아서 아마 전문위원이 설명할 때 넘어

간 것 같고요.

혹시 임호선 위원님 별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임호선 위원** 이게 지금 어떻게 다루어져야 되는지…… 그리고 수정의견 내 주셨는데 그것에 대한 자료가 하나하나 다 붙어 있나요? 정부 측 수정의견, 예산 조정된 내역.

○**조승환 위원** 제 생각으로는 정부 측에서 수정한 내용들, 어느 위원님 의견은 수용하고 어느 위원님 의견은 안 받았다 이것은 설명이 필요 없고 그것은 우리가 다시 얘기하면 되는 거고.

금액을 모르겠는 내용들이 있단 말이지요. 어떻게 나온 금액인지 그것에 대한 내용……

○**해양수산부차관 김성범** 수정 수용 의견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릴까요?

○**소위원장 송옥주** 그렇게 해 주세요.

○**해양수산부차관 김성범** 알겠습니다. 1번부터 말씀 올리겠습니다.

1번은 증액 요구 수용이고요. 2번도 수용이고요.

3번은 앞쪽에 325억 1000만 원과 뒤쪽에 20억 8000만 원 두 가지 요구 사항이 있는데 뒤쪽에 있는 20억 8000만 원이 앞에 있는 325억 1000만 원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325억 1000만 원을 수용한다는 의견입니다.

3-2는 수용이고요. 3-3도 수용입니다.

4-1과 관련해서 바우처 사업에 110억 증액 의견과 221억 증액 의견 두 가지를 주셨는데 저희들은 바우처 사업의 취지를 감안해서 큰 금액인 221억 원을 수용한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4-2의 79억 원은 수용이고요. 그렇게 해서 이 2개를 합치면 저희들이 바우처 사업에 300억 원 증액하는 것을 수용한다는 의견입니다.

5-1은 수용이고요.

6번에서 유가연동보조금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주셨습니다. 416억, 795억, 276억 이렇게 세 가지는 어업용 면세경유 유가연동보조금에 관한 사안이라서 이거는 저희들이 리터당 217원을 적용하고 보조율 70%를 적용해서 지금 정부안보다도 지급상한액을, 정부안이 리터당 115원인데 이거를 217원으로 인상하는 안인 416억 원을 수용한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페이지, 6-4는 두 가지 의견을 주셨는데 서삼석 위원님은 전남지역 양식장 등 또 휘발유까지 포함해서 지원하자는 의견이시고요. 조경태 위원님, 조승환 위원님은 부산지역 어선에 대한 지원을 말씀하셨는데 경유에 대한 것은 앞의 유가연동보조금에 포함돼서 처리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양식장과 어선 휘발유에 대한 것을 추가로 저희들이 산정했는데 특정 지역에만 하기가 어려우니 그것을 전국적으로 확대할 때 금액을 산출한 것이 59억 원입니다. 그래서 양식장 및 어선 휘발유를 전국에 적용하는 금액으로 해서 59억 원을 저희들이 수용한다는 의견입니다.

7번 수용이고요. 8번도 수용입니다. 9번도 수용이고요.

10번은 연안화물선 유류비 보조에 대해서 경유 외에 중유도 포함하자는 말씀 주셨고요. 유류세보조금 23억 5000 증액하는 의견이 두 군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류세보조금 23억 5000만 원은 그대로 수용이고요. 경유·중유에 대한 유가연동보조금은 기간을 9

개월을 기준으로 해서 615억 원을 요구하셨는데 저희들이 모든 기름 고유가에 대한 지원은 일단 9월까지를 지원 기간으로 모든 사업들을 맞추는 필요가 있다고 봐서 기간을 그렇게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총금액이 415억 4600만 원이 나와서 그거를 수정한 거고요. 11페이지에 있는 금액들은 이 앞의 금액에 다 포함됩니다.

11번 수용이고요.

12번 연안여객선 유가연동보조금도 106억 요구하셨는데 이것도 기간을 아까 말씀드린 그 기간으로 저희들이 맞췄더니 조금 줄어서 70억 6600만 원 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70억 6600만 원 수용한다는 의견 드렸고요.

연안여객선 유류비 인상분은 앞의 유가연동보조금으로 상당 부분 커버가 되고요. 추가되는 금액에 대해서 일부 지역에 대한 추가 의견을 주셔서 이거는 저희들이 특정 지역만 할 수가 없어서 전국으로 확대하되 기간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9월까지로 조정해서 산출했더니 78억 1300만 원 숫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구하신 금액보다 좀 높습니다만 전국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78억 1300만 원을 수용한다는 의견 드렸습니다.

14번 광양항 물류 기업 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특정 지역에만 저희들이 지원할 수가 없어서 이거를 전국적으로 확대하되, 지급상한액을 다른 물류 업계에는 리터당 183원으로 지금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상한액을 적용하고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검토를 했더니 104억 8200만 원이 나와서 그것을 저희들이 수용한다는 의견 드렸습니다.

15번 국적선박 피해와 관련해서 657억 증액 요구를 하셨는데 저희들이 지난번 상임위 전체회의 이후에 해운협회하고도 협의하고 저희 해수부에서 이 해당 선사와 직접 다 구체적으로 상황들을 확인하고 이번 사태로 인해서 증가되는 비용 부담이 얼마인지를 일일이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확인했더니 요구한 기간 중에 148억 원으로 확인했고 해운협회도 이 금액에 대해서 동의하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지원하겠다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16번 수용이고요.

17번은 관공선인데 관공선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만 산출 근거가 좀 달라서 다른 관공선과 금액 산출 근거를 일치시키다 보니까 요청액보다 좀 적은 19억 7600만 원으로 산정이 됐습니다. 이렇게 수정 수용한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19페이지, 상생할인에 대해서는 증액 요구와 감액 의견 있으신데 저희들은 일단 증액 의견 수용한다는 말씀 드립니다.

마지막 1-2는 원안 수용입니다.

이상으로 수정의견에 대한 설명을 마쳤습니다.

○소위원장 송옥주 혹시 위원님들 추가로 의견 있으시면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환 위원님.

○조승환 위원 대체로 처음 정부안보다는 많은 부분들이 보완됐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원양어선 문제 그다음에 연안화물선의 증유 사용 문제, 어선들의 휘발유·경유 사용 문제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런데 여기에 빠진 부분들이, 관공선들이 지금 어업지도선하고 수산과학원 배만 들어가 있고. 지금 정부 행정선이나 이런 부분들은 들어가 있나요? 표지선, 청항선 그런 거

들어가 있나요, 여기에?

○해양수산부차관 김성범 11번……

○조승환 위원 들어가 있다, 없다만 답변해 주세요.

○해양수산부차관 김성범 예, 11번에 들어가 있습니다.

○조승환 위원 그런데 또 하나의 문제점이 뭐냐고 그러니까 지금 산하기관들에 넘어가 있는 배들, 예를 들면 해양환경공단에 있는 청항선 문제라든지 이 부분들은 사실 존경하는 서천호 위원님이나 문금주 위원님이나 그런 말씀을…… 청항선 지원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될 것이고 그게 국가항이 아니다 해서 내버려둘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 부분들에서의 기름값 인상에 대한 추가 소요도 반영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그거에 대한 답변해 주세요.

○해양수산부차관 김성범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그 부분은 우선 연간 기름값이 있기 때문에 운영해 나가면서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추가적인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또 예비비를 반영하는 방법도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하여간 위원님 주신 말씀을 유념해 우리 공공기관의 선박들도 운항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조승환 위원 그리고 상생 할인쿠폰 문제에 대해서 정부 의견하고 저하고 굉장히 많이 다른데, 이거는 위원장님이 증액 의견 내셨고 또 존경하는 서삼석 위원님이 증액 의견 내셨는데.

나는 지금 이 정부가 굉장히 답답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답답하다는 생각을. 왜냐, 정책이라는 거는 정책 목표가 있는 거예요. 정책 대상자가, 물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입니다마는 일단 농림부 포함해서 이게 농수산인이 직접 정책 대상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업 자체는 농어민들의, 그러니까 산출되는 이런 물량들의 소득이나 이런 부분하고 사실 인과관계나 연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 뭐 개인적이 아니라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거는 어떤 사유로 인해서 수산물의 소비가 현격하게 줄어든 것 같다는 사정 또는 어떤 어종이 예를 들어서 과도하게 과잉 생산이 돼 가지고 가격의 폭락이나 심지어 생물 같은 경우에는 다 버려야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소비 촉진을 하기 위해서 하는 정책이 상생소비쿠폰이고 여러분들이 이게 옛날부터 있었다라고 지금 자꾸 저한테 주장을 하시는데 사실 옛날에 있었던 예산 규모하고 지금 예산 규모하고는 규모가 완전히……

지금 본예산이 1000억이지요?

○해양수산부차관 김성범 본예산 1000억입니다.

○조승환 위원 본예산 1000억, 이게 과거에 다 백 단위 이하로 있었어요, 후쿠시마 오염수 하기 전에. 그때는 설이나 추석 이럴 때, 수요가 많아질 때 우리 국민들한테 일종의 ‘우리 농수산물을 이용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라는 차원에서 해수부·농림부가 해서 풀었던 예산이에요.

그런데 지금 정책 목표가 완전히 달라져 있단 말이지요. 그런 상태에서 이것을 가지고, 물론 전쟁 추경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상황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소비를 촉진시켜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고 그런다면 지금 있는 예산…… 지금 이제 3월, 4월 지났으니까 평

균적으로 예산 집행해 봐야 한 30% 했겠지요, 정상적으로 했다고 했을 경우에. 그러면 그 예산을 갖다가 당겨 가지고, 예를 들어서 지금 기름값 때문에 그게 안 된다, 소비가 너무 준다, 그래서 어민들이 고깃값이 떨어진다고 이런 상황이 되면 오히려 그 돈을 당겨 와서 소비 촉진을 먼저 시키는 게 우선인 부분이지 이것 추정 반영해 가지고 추석 때 하겠다, 이런 예산 반영이 맞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심각하게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다.

현실적으로 이 부분들을 지금 지역에 가서 하다 보면, 이게 적용에서 굉장히 문제점들이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수산물 소비가 이거로 인해서 늘어났다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수산물 소비가 늘어났다고 보는 게 아니라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다른 시장에서 뺏아 온 소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지금 단가가 올라 가지고 조업이 안 돼 고기가 안 들어오는 상황이에요. 고기를 못 잡는다고 지금 어민들은 난리를 피우고 있는…… 죄송합니다. 어민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를 소비 촉진을 하겠다 해서 지금 더 풀겠다? 이거는 정말 정책적으로 고민해 봐야 되는 부분이고 철학적으로 고민해 봐야 되는 부분이다.

그래서 그럴 것 같으면 제가 수산 바우처 해 가지고 이 상응하는 금액을 바우처로 해서 상생할인 부분은 접어 두고 진짜 어려우신 분이 수산물을 드실 수 있도록 하는 바우처 사업으로 바꾸자라고 해서 감액 의견을 내고 바우처에 증액 의견을 낸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기에서 우리 위원장님이 어떤 결정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부에서 빼 주는 게 맞다, 그게 제대로 된 정책이고 지금 상황에 대한 올바른 진단이다 그렇게 생각해서 저는 감액을 강력히 주장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송옥주 다음은 문금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금주 위원 문금주입니다.

일단 우리 해수부가 본예산에 담았으면 싶었는데 그게 본예산이 아니라, 하여튼 정부 예산에 반영해서 왔었어야 되는 그런 부분들 늦게나마 추경에 수용 의견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특히 지난번 전체회의 때 정책자금 관련해서 금리 인하, 이차보전 이런 부분들 신경 써 준 것에 대해서도 제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소비 촉진을 위한 이런 부분도 존경하는 조승환 위원님이 말씀을 주셨습시다만 유통비가 높아서 지금 조업을 나가면 예전만큼 고기를 잡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공급 물량이 달라니 아무래도 단가가 올라갈 것이고 소비자들 주머니 여는 데 좀 한계가 있을 거다. 그런 측면에서 소비 촉진을 하는 부분도 일용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측 의견에 공감을 하는 바고.

제가 궁금한 게 6페이지의 어업인 면세경유 유가연동보조금 한시지원 관련해서 지금 6-1은 지급상한액을 217.7원으로 했고 6-2는 311원으로 했던 말이에요. 그런데 지급상한액도 차이 있지만 보조율에서도 차이가 나는데 보조율은 일단 70%로 한다 할지라도 217.7원하고 311원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될까요, 그 차이는?

○해양수산부차관 김성범 지금 선박용 경유는 최고가격제 적용이 2차부터 됐거든요. 그래서 면세유의 경우에는 지금 1381원 정도가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유가연동보조금을 지급하는 기준은 1070원이고요. 그래서 그 갭을 다 보전을 해 준다는 것이

6-1번 416억입니다. 그래서 현재 가격 대비 기준 이 전체를 다 보전을 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금주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4월 기준이던데 금방 풀릴 것 같아요? 어쨌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우려가 없습니까? 더 높아질 것 같은데, 최고가격도.

○해양수산부차관 김성범 여러 가지 우려들이 있고 저희들이 이 사태가 장기화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저희들이 예산을 산정하는 데 기준이 있어야 되니까 일단 현재 시점에서 제일 높은 가격 대비 기준점의 차액을 다 반영하는 것으로 이번 추경에는 좀 해 주시고요. 하여간 더 상황이 악화된다면 또 그에 따라서 별도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금주 위원 아니, 그래서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지급상한액을 311원으로 하고 보조율은 그냥 70%로 하되 311원으로 상한액을 높이면, 두 번째 기준으로 하게 되면 좀 더 높아지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려 보는 겁니다.

아무튼 추경 정부안에 반영이 안 됐던 전기료 부분이랄지 여러 가지 반영이 된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송옥주 이 질문에 대해서 혹시 의견 있으세요, 답변이나?

○해양수산부차관 김성범 아까 말씀 올린 대로 저희들 보조율도 작년까지는 50%였거든요. 그런데 금년에 이 상황 때문에 저희들이 70%로 올린 것이고 그렇게 해서, 우선 현재 최고가격 기준으로 해서 일단 416억으로 통과를 시켜 주시고요. 아까 말씀 올린 대로 이 상황이 더 장기화되고 더 악화되면 정부 차원에서도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을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송옥주 다음은 임호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선 위원 존경하는 조승환 위원이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수산업가치 및 소비촉진 이게 1017억인데 1분기가 지나서 아직 예산 실집행을 통계를 안 나왔을 텐데 예산 조기집행으로 200억 증액을 굳이 안 해도 저는 정책 효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거 감액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송옥주 정부 측 의견 있으세요?

○해양수산부차관 김성범 이 상생할인 사업에 대해서는 지난번 상임위 전체회의에서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조금 우려의 말씀을 주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이후에 조금 더, 저도 우리 실무자들 불러서 꼼꼼하게 이 상황들을 체크를 해 봤고요. 제도를 좀 더 개선할 여지는 저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들 저희들이 세밀하게 좀 챙겨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대형 유통업체만 배를 불리는 그런 사업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챙겨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전반적으로 모든 분야의 물가가 인상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산물 물가도 올라갈 것으로 지금 현재 예상이 되는데 결국 소비자분들의 소비 여력도 그만큼 줄어들 것이고 그렇게 해서 지금 상태로 그냥 둔다고 그러면 수산물 소비가 위축될 우려가 상당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수산물은 가격 변동에 따른 소비 탄력성이 되게 높다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

표적으로 고등어를 전문가들이 좀 분석을 해 보니까 고등어 가격이 한 10% 올라가면 소비가 24% 정도 준다는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어종별로 좀 다르기는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상태를 그냥 유지를 한다면 소비 위축 우려가 있어서 이런 상생할인제도를 통해 소비 유지를 하고 더 확대를 시키는 노력들이 필요하다. 물론 유통업체도 이익을 보겠지요. 그러나 결국은 그만큼 생산 단계에서의 물량 흡수 능력이 높아진다고 보고요.

저희들이 조금 더 제도 보완을 하겠다는 말씀은, 지금은 큰 물량인 대중성 어종이라고 하는 6개 어종 위주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현장에서의 체감 효과가 조금은 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추경을 반영을 해 주시면 이 추경 반영한 부분은 거진 전액을 전통시장으로 배정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장에서 수급에 조금 불안정이 있는 품목들, 물량을 조금이라도 흡수를 해 줘서 가격을 안정시켜 줘야 되는 품목들 위주로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 걱정도 많으시지만 사실은 저희들이 연초에 수요를 받아 보면 명게·전복·장어 여러 생산자단체에서 해당 품목을 넣어 달라는 요청도 또한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올해 여러 가지 여건들이 어렵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기존 예산도 저희들이 잘 집행을 하겠습니다만, 현재까지 실집행이 1/4분기에 한 400억 정도 됐다고 그러합니다. 그래서 3분의 1보다는 좀 많이 집행이 됐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우리 수산물 소비도 유지를 하면서 그 혜택이 우리 어업 현장에 갈 수 있도록 각별하게 챙겨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저희들이 바우처 증액에 동의했는데, 바우처의 필요성에 대한 것은 그대로 인정이 돼서 그건 그것대로 저희들이 증액 수용해서 하여간 기재부를 적극적으로 설득해 상생할인과 바우처 사업 2개를 통해서 소비를 확대를 하고 그 효과가 우리 생산자인 어업인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송옥주 더 이상 말씀하실……

서천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서천호 위원 차관님, 우리 주제는 어촌이니까 유류 인상에 대해서 그냥 직격탄을 다 맞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 언론에도 보도가 됐지만 실질적으로 출어를 안 하고 싶다. 왜냐하면 유류비 인상이 워낙 세기 때문에 나가서 고기를 잡아 와 가지고 팔아 본들 그 인상분 충당을 못 한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지금 현장 상황이 어렵다는 얘기인데 그것은 알고 계실 것 같고.

그래서 존경하는 우리 문금주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사실은 제가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저는 동의를 합니다. 그 취지에 동의를 하고 또 우리 임호선 위원님 하신 말씀에도 동의를 하는데 제가 정책 대안…… 예산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6-2 항목에 보면, 지급상한액을 6-1 항목은 217원을 했던 말이에요. 그런데 6-2는 311원으로 조금 높였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보조율을 100%로 상향하는 그런 의미인데 지금 연동 보조금을 9월까지로 한시적으로 설정을 해 놓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유가연동보조금을 충분히 지원해서 실질적으로 실제 어민들이 바다에 나가서 고기를 잡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또 어획량이 늘어나면 실제로 물가도 그렇게 안 땀다는 거지요.

그러면 굳이 바우처 예산을 이렇게 221억 원 편성을 해서 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이 예산을 차라리 유가연동보조금에 충분히 재편성하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

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서, 왜냐하면 현장에서 본업을 충실히 하시는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간접적인 방법으로 그걸 보전해 주겠다는 것은 사실상은 어렵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6-2 항목입니다. 416억 원을 증액했는데 795억 증액을 요청을 합니다. 대신에 바우처 예산 221억 감액을 요청하는 것으로, 그게 제 의견입니다.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해양수산부차관 김성범** 지금 저희들 실무적인 계산으로는 311원…… 결국 795억은 보조율을 100%로 상향해 달라는 의미가 되겠네요. 지금 311원에 70%를 적용하면 그게 217원이거든요.

○**서천호 위원** 보조율이 하나는 70%고 하나는 100%라는 얘기지요?

○**해양수산부차관 김성범** 예. 그러니까 100%로 인상을 해 달라는 그런 말씀이신 거지요, 결과적으로?

○**서천호 위원** 예.

○**해양수산부차관 김성범** 그러시면 위원장님, 여러 가지 사업들을 복합적으로 연계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좀 말씀을 올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유가연동보조금 보조율을 100%로 해서 795억 원을 저희들이 수용을 하고요. 바우처 사업도 소비 진작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견 주신 거니까 그건 그대로 그냥 가시고 그다음에 상생할인은 지금 증액 의견도 있으시고 감액 의견도 있으신데 이거는 정부 원안 유지로, 저희들 본예산 대비 300억 증액한 정부 원안 유지로 이렇게 세 가지 사업을 연계해서 정리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승환 위원** 질의할 게 있습니다.

○**소위원장 송옥주** 조승환 위원님.

○**조승환 위원** 지금 기준가격은 2022년 몇 월에 설정된 그 가격 그대로 쓰고 있다, 그렇지요? 기준가격 1070원이?

○**해양수산부차관 김성범** 예, 기준가격은 그렇습니다.

○**조승환 위원** 그러니까 이게 한도의 문제도 있지만 기준가격의 문제도 있단 말이지요. 사실 어떻게 보면 제가 이것까지 건드리면 너무 틀을 건드리나 해서 지금 말씀을 안 드리는데 금액을 이야기를 하시니까 기준가격을 낮추는 방법에 대해서도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제가 알고 있기로 금년 3월 중동전쟁 나기 전의 기준가격은 한 900원 정도 될 거예요, 면세유가.

○**해양수산부차관 김성범** 한 880원 됐습니다.

○**조승환 위원** 한 900원 정도 됐는데 이거를 지금 1070원으로 일단 올려놓고 시작을 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게 캡에 걸리고 밑에 걸리고, 보텀에 걸리고 양쪽에 다 걸려가지고 안 되는 경우들이 사실상 많이 있더라. 그래서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사실 기준가격을 금년 3월 가격으로 하는 게 더 맞지 않느냐라는 의견을 드리고.

그다음에 아까 휘발유 이런 거 할 때 작업선들도 다 지금 포함되는 겁니까? 양식장 작업선들, 어선으로 등록 안 돼 있는 양식장 작업선들까지 다 포함되는 거지요?

○**해양수산부차관 김성범** 예, 포함됐습니다.

○조승환 위원 그거 확인드리고.

그다음에 지금 제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죽 보다 보니까 해수부만 3월 분이 소급 지원이 안 된다라는 지적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거는 개선을 한 겁니까?

○해양수산부차관 김성범 어업용만 매월 금액을 정하기 때문에 인상된 금액이 4월부터 적용되니까 어업용은 3월이 적용이 안 됐고요. 나머지 연안화물선은 3월부터 포함돼 있습니다.

○조승환 위원 왜 3월을 해 줄 수가 없지?

○해양수산부차관 김성범 아니, 그러니까 어업용은 3월은 기존 가격 기준으로 다 공급이 됐기 때문에 인상이 되지 않았습시다.

○조승환 위원 3월분 공급은 그냥 상관없이……

○해양수산부차관 김성범 예, 기존 가격대로……

○조승환 위원 그러니까 오르지 않은 가격으로 공급을 했다 이 말씀이시네요?

○해양수산부차관 김성범 그렇습시다.

○조승환 위원 알겠습시다.

○소위원장 송옥주 질문 끝나셨어요?

○조승환 위원 예.

○소위원장 송옥주 임호선 위원님 간단하게 좀 부탁드립니다.

○임호선 위원 그러면 증액 부분은 일단 정부 원안대로 하겠다는 답변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해양수산부차관 김성범 상생할인 말씀이신가요?

○임호선 위원 예.

○해양수산부차관 김성범 정부 원안 유지를 요청을 드립니다.

○임호선 위원 제가 농림부 쪽하고 같이 보다 보니까 양식어가 있잖아요. 배에 대한 부분은 이것저것 유류 부분이 많이 담겼는데, 농림부 쪽에서는 농가 사료구매자금 금리 인하 예산이라든가 또 구입비용 부담 완화에 따른 융자금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담겼거든요. 그런데 양식어가 있잖아요. 이분들은 이번 추경에…… 역시 사료구매라든지 현실적으로 부담을 많이 느낄 텐데, 저는 바닷가는 아니지만 내수면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사료 쪽으로는 전혀 고민이 안 담겼어요. 그래서 예컨대 이쪽을 200억 증액하진 않는다면…… 금리 인하 1.8%에서 1%로 줄이는 데 농림부 쪽에서는 국비 100%로 이거를 해도 20억 정도 예산만 가지고도 정책 효과를 많이 본다 이렇게 지금 추계가 나오고 있는데 양식하시는 어민분들한테—뒤에 있는 실무자들 자료 금방 나올 텐데—이런 부분들 현장 수요 좀 반영할 수 없겠습니까, 차관님? 사료 부분이요.

○해양수산부차관 김성범 위원님 말씀 주신 양식어가에 대한 것은 이번에 전기료 증액된 것에 대한 지원이 담겼고요.

○임호선 위원 사료 부분도 부담이 많이 될 텐데.

○해양수산부차관 김성범 사료는 3-3번 배합사료 구매자금 상환 유예에 대한 지원액 8억 1500만 원 증액 의견 주셔서 저희들이 수용했습니다.

○임호선 위원 너무 미흡한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농림부 쪽은 사료구입 비용 부담 완화에 따른 융자금 증액도 있고 또 금리인하 예산…… 금리인하 예산 같은 경우는

피부에 바로 와닿지 않습니까? 1.8%에서 1%로 줄이는 것 같은 경우는 정책 효과가 금방 나타나거든요. 참 고맙다라는 현장 평가, 좀 나아졌다, 달라졌다라는 평가가 바로 나올 텐데 이렇게 실효성 있는 예산을 담으면 예산당국도 설득하기 좋지 않겠습니까?

○**해양수산부차관 김성범** 저희들 3-1의 수산자금 이차보전 쪽에서도 양식장에 대한 이차보전 지원 예산들이 담겼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현 단계에서 담을 수 있는 것은 나름대로 저희들이 반영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임호선 위원**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송옥주** 수고들 하셨고요.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실 것 같고.

아까 해수부차관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 정리를 하겠습니다.

4번의 수산식품 바우처와 관련된 부분은 221억 증액하는 부분에 대한 수용 의견은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업인 면세경유 유가연동보조금 한시지원과 관련된 6-1번, 6-2번, 6-3번과 관련된 부분은 795억 원으로 증액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증·감액 동시 요구한 수산업가치 및 소비촉진 제고와 관련된 부분은 증액·감액 없이 그냥 원안대로, 추정안대로 이렇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세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해양수산부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지금까지 심사하여 조정한 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부적인 자구와 금액 등의 사항에 대해서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수고하신 해수부차관님 이 의결과 관련돼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차관 김성범** 위원장님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해양수산부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 의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주신 사항들을 저희들이 깊이 인식하고 본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현 중동전쟁과 관련돼 있는 우리 해양수산 종사자의 어려움을 더욱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송옥주** 해양수산부차관님과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및 관계 직원이 착석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등을 위해서 정부 측에서 김종구 차관이 출석하셨습니다.

그러면 추정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정은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소위 심사자료 4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목차 다음 페이지의 현황을 보시면 현재 증액 요구사업 16건, 증·감액 동시 요구사업 3건, 부대의견 11건을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셨습니다.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액 요구사업 16건 중 농촌정책국과 농업정책관 소관 6개 사업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정책국 소관 2개 증액 요구사업입니다.

연번 1번 청년 등 농촌형 비즈니스 창업 지원사업은 농촌 창업·관광 활성화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 예산 45억 2400만 원을 신규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송옥주 위원님 등 열 분 위원님께서 제기해 주셨습니다.

다음 페이지의 연번 2번 농촌 생활인구 유입 지원사업은 강진군의 빈집 리모델링 사업 예산으로서 내역사업인 농촌소멸 대응 빈집재생 지원사업 예산 8억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을 문금주 위원님께서 내 주셨습니다.

다음, 3페이지의 농업정책관 소관입니다.

연번 3번 농업용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한시지원사업은 먼저 지원 대상 면세유 유종 및 지원기간 확대에 필요한 예산 1305억 1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김선교 위원님 등 열다섯 분 위원님께서 내 주셨고, 조정태 위원님과 조승환 위원님은 부산시 농가의 유류비 상승에 따른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2억 46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 주셨습니다.

다음, 4페이지의 연번 4번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 차액 지원은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 차액 지원 예산 671억 81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서삼석 위원님 등 열네 분 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음, 5페이지의 연번 5번입니다.

농업자금 이차보전 예산은 먼저 세부 연번 5-1을 보시면 서천호 위원님께서 정부 보전율을 1%에서 3.97%로 높이면서 64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 주셨고, 연번 5-2에서 송옥주 위원님께서 사료자금 지원 금리를 1.8%에서 1%로 낮추면서 20억 4400만 원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또 연번 5-3을 보시면 문금주 위원님께서 축산물 직거래판매장 지원자금 이차보전액 4100만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 주셨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의 연번 6번 농업농촌 교육 훈련지원 사업에서 예비농 1000명을 선발해서 현장 중심 실습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168억 7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이만희 위원님 등 열 분 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셨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송옥주 다음은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정부 측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의 청년 등 농촌형 비즈니스 창업 지원은 정부에서 수용합니다.

2쪽의 농촌 생활인구 유입 지원도 역시 수용합니다.

3쪽의 농업용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한시지원사업은 1305억 1000만 원을 수용하겠습니다. 두 번째, 2억 4600만 원 해 주신 것은 이걸 포함시키면, 1305억 원에 포함해서 집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4쪽의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 차액 지원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농업자금 이차보전 사업의 5-1은 수용입니다. 5-2도 수용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좀 설명드릴 게 있는데 농업인의 사료 부담 완화를 위한 사료구매 자금은 이차보전 사업과 축발기금 사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이차보전 사업은 금리를 1.8%에서 1%로 낮추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만, 축발기금에 농가 사료 직거래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1.8%에서 1%로 낮춰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이 사항은 부대의견으로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5-3도 수용합니다.

6쪽의 농업농촌 교육 훈련지원 사업도 수용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송옥주 우리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선 위원님.

○임호선 위원 3쪽의 면세유 유종 및 지원기간 확대인데, 이걸 해수부 쪽에서는 12월까지 안 하고 9월까지로 기준을 적용한 걸로 보여져서 우리 농림부 쪽도 12월까지가 아니라 9월까지로 기준을 맞춰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저는 아까 그렇게 들었는데요.

○소위원장 송옥주 그러게요. 방금 전에 해수부 논의를 했는데 여기서는 9월까지의 추경예산을 편성했더라고요. 서로 상의를 하시거나 그런 건 없으세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송옥주 아니면 기준이 있다는지…… 농식품부에서 12월까지 하는 데에는 특별한 상황이나 이유가 있는 건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지금 저희들이 반영되어 있는 것은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78억 정도가 반영되어 있고요. 이것은 난방유 기준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난방유도 9월까지만 반영되어 있고요. 전체적으로 면세유 규모를 보면 난방유가 한 30% 차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농기계용이 한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농기계용은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봄철에 많이 사용하고 있고 10월·11월 달 수확기에 많이 사용합니다, 농기계 같은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가격이 지속된다고 봤을 때 가을에 농가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는 연말까지 지원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소위원장 송옥주 임미애 위원님.

○임미애 위원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시면 중간이 비쌌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1년으로 계산할 게 아니라 농한기를 빼고 나머지 달을, 그래서 개월 수로 계산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는 지적을 하신 겁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저희들이 여름에도 농기계 사용을 보면 없어지지 않고 농기계를 계속 사용을 하더라고요. 지금 자료는 월별로 면세유 사용 자료가 있습니다. 보

시면, 여름에도 꽤 소비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은 해수부하고…… 아까 해수부는 70%가 아니고 100%로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처 간에 협의를 해서 조정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위원장 송옥주 그러게요. 저희가 농림식품부뿐만 아니라 해양수산부도 같이 지원을 하고 있는 상임위인데 부처가 같은 항목의 예산이 서로 다른 부분들은 약간의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임미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산편성한 기간과 보조율 부분에 대한 상의가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우리 차관님…… 담당 직원이 있으면 같이 상의 좀 하고 검토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구체적으로 추정예산안에 변동이 있거나 수정 사항 있으면 저에게 그 사항은 좀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금주 위원 다만 개월 수는 아까 해수부 입장은 소극적이었어요. 9월까지 하고 추가로 상황이 더 안 좋아지면 정부가 추가 대책이 있을 거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농림부가 계산한 것처럼 연말까지 우선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십시오.

○소위원장 송옥주 한번 상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환 위원 그런데 저는 생각이 문금주 위원님과 조금 다른 게 과연 이 유가 상태가 이제 4월 초인데 12월까지 가겠느냐, 사실 그런 예측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한정된 정부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문금주 위원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마는 일단 9월로 끊어 놓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규모를 좀 줄인다는 측면에서.

○문금주 위원 제가 여천석유화학단지를 가 보니까 이게 호르무즈해협이 풀려도 정상화되려면 2개월, 4개월이 추가 소요가 돼요, 이게 끝난다고 해서 바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승환 위원 물론이지요.

○문금주 위원 그래서 유가가 오른 게 전쟁이 끝나면 바로 떨어지는 건 아니다, 이 점은 감안하십시오.

○조승환 위원 저 질의 좀……

○소위원장 송옥주 조승환 위원님.

○조승환 위원 이것 지적을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는데 이번에 농특세가 한 5조 정도 더 걷어졌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추정입니다. 5조 1000억 정도……

○조승환 위원 물론 추정이겠지. 농특세가 더 걷어지면 이게 농특회계로 들어올 것 아닙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조승환 위원 그 농특회계에서 지역균형발전회계로 4조 5000억 정도가 지금 전출이 돼요. 그렇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그렇습니다.

○조승환 위원 거기서 기재부가 일반회계에서 전출해 왔던 4조 8000억 정도가 빠져요. 그래서 일반회계를 맞추면서, 그러니까 지특으로 나와 있던 게 빠지면서 지금 5조짜리

목적예비비로 가 있던 말이에요. 결국은 무슨 이야기냐면 농어촌특별세로 해서…… 농어촌특별세는 목적세 맞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목적세 맞습니다.

○**조승환 위원** 농어민을 위해 써야 되는 거야. 농어민을 위해서 써야 되는 예산을 ‘국가재정법상’ 이런 이야기를 하지 말고 농림부 입장에서 이게 잘된 거냐, 농림부 입장에서 이걸 이렇게 보고 잘 거냐 아니면 기재부에서 나중에 이 부분에 관해 ‘지금 정부 재정상 어쩔 수 없으니깐 그렇게 작업한다’…… 이게 눈에 너무 보여요. 농특세 건어서 농특에 있던 거를 지특으로 보내고, 일반회계에서 지특에 가 있던 걸 빼고 그 일반회계 가지고 목적예비비 5조 조성하고, 결국은 농어촌특별세 재원이 목적예비비 5조로 갔다 이렇게밖에는 나는 해석이 안 돼요.

이것에 대한 농림부 입장 이야기해 주세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국가재정법에서는 할 수 있게 돼 있고요.

○**조승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가재정법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하지 말라고 전제를 했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증권거래가 활발하면서 추가적으로 더 걷어 갖고 여유 재원이 생겼습니다만 몇 년 전의 경우에는 우리 농특세가 부족했습니다. 부족하면 딴 데서 전입을 받고 있기 때문에……

○**조승환 위원** 알아요, 알아요. 그것 내가 몰라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현재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너무나 명약관화하게 눈으로만 쭉 펼쳐 보면, 이렇게 된 것에 대해 농림부를 내가 질책하고 앞으로 이런 부분들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농림부 입장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건 재정법상 할 수 있고 없고 이걸 떠나서 법상으로 정확하게 따지면, 농특법상으로 따지면 지역발전계정으로 갈 수 있지 지역지원계정으로는 전출이 안 되도록 돼 있잖아요. 뭘 그렇게 법적으로 자꾸……

국가 전체적인 재정 운영에 관련해서 하는데 지금 기재부 입장 이야기를 하라는 게 아니라 농림부 입장에서 이게 맞느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저희들은 총규모 확보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재부와 계속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승환 위원** 또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송옥주** 더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지금 이 제안설명한 부분 중 3-1번 관련된 부분들은 각 부처 간의 형평성 차원에서 기심의한 해수부와 기간과 보조율 관련된 부분들을 상의하시고 구체적인 수정예산과 관련된 부분은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5페이지의 5-2번 관련된 건 부대의견을 달아 달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송옥주** 촉발기금의 직거래에 필요한 사료구매자금 지원도 금리를 1%로 인하해 달라, 그 부분을 부대의견으로 달아 달라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정은** 다음은 농산업혁신정책관과 식량정책관 소관 6건에 대해서 먼

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의 연번 7번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 지원사업은 지원단가 및 지원물량 확대에 따른 예산 증액을 윤준병 위원님 등 여덟 분은 121억 500만 원 또 전종덕 위원님 등 여덟 분은 160억 원 증액하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 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8번 농산업 수출활성화 사업은 농산업 수출업체 지원 확대를 위해서 14억 7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임호선 위원님 등 열 분 위원님들께서 내 주셨고, 연번 9번 농업용 비닐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 지원사업은 송옥주 위원님하고 이원택 위원님께서 농업용 비닐의 안정적 공급 및 농가 경영비 부담 완화를 위해 154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음, 연번 10번 전기농기계 구입 지원사업은 신규 사업으로서 윤준병 위원님과 임미애 위원님께서 전기농기계 800대 구입 예산 19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식량정책관 소관으로 연번 11번 농촌용수 개발사업은 전남 강진 화산지구 기본조사 예산 5억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문금주 위원님께서 내 주셨고요. 연번 11-2를 보시면 전남 고흥 고흥만지구 기본조사 예산 3억 원이 신규 반영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연번 12번 K-푸드 수출허브단지 구축사업은 이원택 위원님께서 새만금 신항만 배후단지에 K-푸드 수출허브단지를 구축하기 위해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비 5억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송옥주 끝까지 다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수석전문위원 이정은 마저 할까요?

○소위원장 송옥주 예.

○수석전문위원 이정은 축산정책관 소관으로 연번 13번 사료산업 종합지원 사업은 사료 원료 구입비용 부담 완화에 필요한 융자금 50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열한 분 위원님께서 제기를 해 주셨고, 연번 14번 도축장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은 도축업체 및 축산농가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도축장 전기요금 특별지원 400억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열세 분 위원님들께서 해 주셨습니다.

연번 15번 농가 사료 직거래 활성화 지원사업은 경영비 절감에 필요한 융자금 1000억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을 문금주 위원님하고 어기구 위원님께서 얘기를 해 주셨고, 아까 3-2에서 말씀하신 1%로 금리를 낮추자는 부대의견과 관련된 내용이 이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의 16번 농업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은 시설원예 농가 경영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 시설지원 예산 26억 9500만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을 송옥주 위원님, 어기구 위원님, 임미애 위원님 세 분이 해 주셨고 또 주철현 위원님 등 열 분은 15억 원 증액 의견을 내 주셨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소위원장 송옥주 한꺼번에 다 해 주세요.

○수석전문위원 이정은 한꺼번에 다 해 드릴까요?

○소위원장 송옥주 예.

○수석전문위원 이정은 13페이지의 증·감액 동시 요구사업 연번 1번 농지이용관리 지원 사업은 임미애 위원님께서 연내 전수조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148억 7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 주셨고 그다음에 추경 편성 목적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서천호 위원님, 정희용 위원님, 조승환 위원님이 내 주셨는데 또 김선교 위원님께서 추가적으로 감액 의견을 같이 내 주셨습니다.

그다음에 14페이지입니다.

연번 2번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시범사업 대상지역 확대를 위한 예산을 문금주 위원님은 706억 3000만 원, 이원택 위원님은 260억 55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 주셨고 또 추경 편성 목적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서천호 위원님·정희용 위원님·조승환 위원님이 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소위 자료에는 없지만 또 김선교 위원님도 전액 삭감 의견을 추가적으로 내 주셨습니다.

다음에 15페이지의 연번 3번 농식품 소비기반 조성사업은 송옥주 위원님과 여기구 위원님이 전년과 동일한 수준의 예산 편성을 위해서 70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 주셨고, 이원택 위원님이 2억 원 증액 의견을 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조승환 위원님께서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은 기업 및 소비여력이 있는 중산층 이상에 편중되고 위장 할인행사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로 증액분 500억 원 감액 의견을 내 주셨습니다.

그다음에 부대의견을 같이……

○소위원장 송옥주 예, 한꺼번에 다 해 주세요.

○수석전문위원 이정은 부대의견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의 1번 농업용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한시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윤준병 위원님께서 ‘농림축산식품부는 농협의 면세유 취급수수료를 폐지하거나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라는 의견을 내 주셨고, 연번 2번 재해대책비와 관련해서는 서천호 위원님께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자연재난 복구비용 기준에 딸기 육묘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별도 단가의 신설 등 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한다’는 의견을 내 주셨고요.

연번 3번 농식품소비 기반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임호선 위원님은 ‘농림축산식품부는 중동전쟁에 따른 영향이 대형유통 경로보다 전통시장에 크게 나타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농축산물 할인지원 내역사업에서 전통시장 예산 비중을 확대 조정한다’는 의견을 내 주셨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연번 4번 네 분 위원님께서 ‘농림축산식품부는 나프타 수급 불안에 따른 농자재 가격 급등에 대응하여 관련 예산 반영을 적극 추진하고, 원자재 우선 배정 등 실질적인 농가 경영안정 대책을 강구한다’는 의견을 내 주셨습니다.

연번 5번 주철현 위원님께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친환경농업 기반 조성을 위하여 지방이양 후 올해 국고보전 기간이 종료되는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대한 관련 대책을 강구한다’는 의견을 주셨고, 연번 6번 임미애 위원님께서 ‘농림축산식품부는 비료의 안정적 수급을 위하여 공동구매 지원 및 비축 등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적정

시비 및 완효성 비료 사용 지원을 위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연번 7번 임호선 위원님께서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 기본소득의 지급으로 인하여 기존 농민에게 지원되던 사업이 축소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한다’는 의견을 주셨고, 연번 8번 ‘농림축산식품부는 관광·체험농가의 자연재해 피해로 인한 농작물 감소를 고려하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보험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검토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 18페이지의 연번 9번 임호선 위원님께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양봉 봉군 입식비 상승에 따른 농가 부담 완화를 위해 가격 동향 및 수급 현황을 점검하고 입식비 지원 등 지원 방안 마련을 검토한다’ 그다음에 연번 10번 이원택 위원님께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직전 연도에 불가피한 사유로 쿡을 생산하지 못한 농가를 전수조사하여 직불금 지급에 관한 별도의 구제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국산 쿡의 소비 확대 대책을 우선 추진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연번 11번 정희용 위원님께서 ‘농림축산식품부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농협하나로마트와 로컬푸드직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한다’는 의견을 주셨고,

19페이지에 기금운용계획 증액 요구가 하나 있습니다마는 이 관련되는 기금은 현재 추경예산안에 포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 걸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송옥주 다음은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7쪽입니다.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 지원사업은 수용합니다. 다만 금액은 문대림 위원님 등께서 제시해 준 121억 500만 원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다음, 8쪽입니다.

8번 농산업 수출 활성화 지원 수용합니다.

9번 농업용 비닐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 지원사업 수용합니다.

전기농기계 구입 지원사업 수용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농촌용수 개발사업 관련해서 11-1, 11-2 모두 수용하겠습니다.

K-푸드 수출허브단지 구축지원사업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사료산업 종합지원사업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도축장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 수용합니다. 농가사료 직거래 활성화 지원사업도 수용을 합니다.

12쪽, 농업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도 수용합니다.

13쪽, 농지이용관리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증액하신 148억 700만 원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관련해서는 706억 3000만 원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농식품 소비기반 조성사업 관련해서는 3-1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3-2는 금액은 수용하되 다만 일부 공모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농

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의 감액 부분은 수용이 곤란합니다.

부대의견과 관련해서는 16·17·18쪽의 1번부터 11번까지 모두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송옥주 다음은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애 위원님.

○임미애 위원 12쪽은 히트펌프 얘기하시는 거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런데 위에 있는 거는 히트펌프에다 에너지 절감시설이 들어가 있고 밑의 15억에는 그냥 히트펌프만 되어 있는데 지금 에너지 절감시설은 어떤 걸 얘기하시나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를 든다면 보온커튼 이런 것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러면 그 밑의 15억은 여기 전체 예산에 포함이 된 거는 아닌데 지금……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위원님, 위에 보시면 26억 9500만 원에 공기열 난방시설이 있습니다. 그게 15억이고 밑의 에너지 절감시설이 나머지 금액이 되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이게 더 비싸네요.

혹시 시설하우스 중 히트펌프를 사용하고 있는 시설에 대한 파악이 좀 되어 있나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저희들이 히트펌프 중에, 크게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지중열이 있고 공기열이 있는데요.

○임미애 위원 이것은 공기열이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이것은 공기열 얘기하고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지금 보급이 되어 있는 게 어느 정도 있는지를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그것 파악을 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보급에 조금 더 적극적이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기억하기에 공기열 방식의 히트펌프 보급에 농림부가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계속 우리가 에너지 문제가 나오거든요. 지금 갖고 계신 자료가 있으면 얘기해 주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그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예.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그동안 예산이 좀 적었기 때문에 신청 대비 보통 한 20~30% 정도 예산 지원이 가능했는데 이번 계기를 통해서 좀 더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건요, 시설원에 농가의 에너지 소비량이 굉장히 큼니다. 그래서 매번 유가에 대해서 지원을 해 달라는 요구도 되게 많은데 언제까지 이 문제를 화석연료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해 줄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그랬고 드리는 말씀은,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방법도 고민해야 되고 거기에다가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떨어뜨리기 위한 방법도 함께 고민을 해 주셔야 된다.

그리고 지금 주택에 들어가는 히트펌프의 경우 국비 지원 40% 아니거든요. 제가 볼

때는 더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설원예 농가에 이게 도입이 되면 요구가 조금 많이 확대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후에 이 사업에 관심 가지고 전면적인 도입이 될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그렇게 잡아 달라 그리고 국고보조율도 조금 더 상향하는 방식으로 해서 농가가 수용성이 좀 높아질 수 있도록 해 달라라는 요청을 드립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위원님, 추가적으로 부연 설명 드리면 위원님이 말씀한 것처럼 저희들이 그동안 에너지 부분에 좀 더 보완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농식품부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서 에너지 효율이 높은 자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의무화시킨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더 고민을 하고 있고 그리고 농가들로 하여금 에너지를 좀 효율성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라든가 이런 것도 저희들이 좀 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이런 위기에 저는 농촌의 화석연료 의존도를 확 낮추기 위한 전향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송옥주** 조승환 위원님.

○**조승환 위원** 차관님, 먼저 농지이용관리 지원사업 중액 이 부분은 중동전쟁 추경 취지와 어떻게 관련시킬 수 있어요? 이 추경 취지와 이 추경의 목적 그다음에 추경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긴급성이라든지 집행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답변을 할 수 있어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추경의 취지가 긴급한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경기 활성화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정책을 하면서 농지 관련 조사도 하면서 금번 추경에 한 이유는 예를 든다면 청년들의……

○**조승환 위원** 그러니까 퍼 주기, 돈 뿌리기 하겠다 이 이야기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지금 실제로 저희들이……

○**조승환 위원** 알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청년 실업률을 살펴봤습니다.

○**조승환 위원** 알겠어요. 그 이야기는 됐고. 그러니까 이 사업은 결론적으로 민생 안정을 위해서 청년들한테 일자리를 주겠다는 그런 취지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그렇습니다.

○**조승환 위원** 그런데 추경을 400% 이상 이렇게 확대 편성을 했는데 기본적으로 저는 이것은 대통령이 지시한 사업에 대한 끼워 넣기 사업이고 재정의 원칙도 훼손하였고 추경의 취지와도 무관한 정책이다라는 전제하에서 하는데, 정부의 의지가 강하니까 내가 좀 두드려 봅시다.

지자체 경상보조 조사원 채용, 되게 재미있어요. 단순히 이런 계산을, 곱하기만 이렇게 해 갖고 오면 예산 산정입니까? 필지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평균 필지가 얼마인가도 나와 줘야 될 것 아닙니까? 930만 필지에 0.5시간 곱하기…… 1만 2235원 이것은 일당 같아요. 그렇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시급입니다.

○조승환 위원 일당 아니에요, 시급이. 그러니까 내 의미는 시급…… 내가 말을 바꿀게요. 일당을 1만 2000원 주는 법이 어디 있어요? 당연히 일당이라고 그러면 시급을 이야기하는 거지.

거기에 보험료 들어가 있는 건데 필지에 곱하기 0.5 해 가지고 이런 예산을 낸다는 게 말이 되느냐, 설명 한번 해 보세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저희들이 현재도 농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하고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산출을 했습니다.

○조승환 위원 그러면 하고 있는 것도 잘못된 거지. 아니, 잘못됐다는 표현은 잘못됐어요. 나는 농림부장관처럼 그렇게 막말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잘못됐다는 표현…… 이때까지 해 온 게 잘못됐다고보다는 체계는 바꿔 주는 게 맞다, 필지를 대상으로 하면.

일단 필지라는 것은 면적 차이가 엄청나게 나는 거잖아요. 그것을 하나의 단위로 쓰면 건 잘못됐다. 그다음에 필지를 단위로 해 가지고 시급을 갖다가 집어넣는 것도 잘못됐다는 것에 대해 분명히 지적하고 넘어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따지는 이유가 뭐냐 하면 과연 집행을 해내겠느냐 이 부분이 내가 지금껏 염려스럽고. 제대로 준비도 안 된 추경을 가져와 가지고 농림부에서 이것 과연 해내겠느냐, 저는 그게 굉장히 두려워요, 걱정스럽고.

농지 전수조사에 관련된 부분은, 저는 이런 전수조사는 단시간에 빨리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본예산에 왔었어야 되는 거고, 추경 취지에 안 맞다는 거고.

그다음에 이것은 답변할 수 있겠지요. 농관원 조사하고 지자체 조사하고는 차이점이 뭐예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지금 전체적으로 농관원하고 지방정부가 같이 공동으로 조사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승환 위원 아, 공동으로 조사한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조승환 위원 그런데 농관원의 392명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나온 거예요? 나 되게 재미있어서 그래.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농관원에서 지금……

○조승환 위원 농관원 직원 숫자가 얼마나 돼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1100명입니다.

○조승환 위원 1100명인데 일용직을 392명 뽑겠다? 400명도 아니고 392명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나오냐고요, 나름대로 계산을 해서 나온 것 같은데?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 필지에 0.3시간 이렇게 들어간 것은 예를 들어 인근 필지라든가 떨어져 있다든가 전체적으로 평균해서, 이 동 시간 이런 것 다 고려해서 지금 하고 있는 기준으로 저희들이 산출을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승환 위원 아니, 392명이 어떻게 나온 거냐고. 농관원의 392명에 일용임금으로 50억 1800만 원을 편성한 게 뭐예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지금 예를 든다면 농관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일단 조사를 하려는 게 620만 필지인데요. 농관원이 47만 필지를 합니다. 47만 필지를 하

면……

○조승환 위원 그러니까 지금 봐 봐. 또 말이 달라졌잖아. 공동으로 한다면서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아니, 공동으로……

○조승환 위원 공동으로 한다는 것은 한 필지에 농관원이 들어가고 지자체가 들어간다는 이야기이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위원님, 그게 아니라 620만 필지를 나누어서 47만, 573만 하는데 그것은 농관원하고 지방정부가 공동으로 조사한다 이런 의미로 제가 말씀드린 거고……

○조승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나누어서 한다는 표현이 정확하지. 오해의 소지가 있잖아요. 한 필지에 농관원하고 지자체 같이 들어간다는 의미로 이해가 되잖아.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관원은 47만 필지를 정리를 하면 392명이 나옵니다.

○조승환 위원 47만 필지에 지금 조사원을 몇 명 채용한다는 게 안 나오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조사원이 392명……

○조승환 위원 아니아니, 지자체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지자체는 역산을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573만 필지를 조사를 할 겁니다. 하는데 지금 채용하는……

○조승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차관님이 실무적으로 준비가 안 돼 있는 건지 차관님이 답변을 잘 못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것 예산 이렇게 추정해 가지고 짜 놓고 나는 이것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라는 의견으로 들려요. 답변 더 이상……

지금 내가 보니까 준비 안 돼 있어.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제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려느냐 하면, 4월 정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5월에서 7월까지의 전체 조사 대상을 우선적으로 해 갖고 현지에서 서류라든가 이런 것을 조사를 할 겁니다. 하고 거기서 문제가 있다고 하는 조사를 추출을 할 겁니다. 그게 저희들이 봤을 때는 620만 필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필지에 대해서는 지방정부하고 농관원이 현장에 나갈 겁니다. 그 현장에 나가는 직원이 한 5100명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농관원이 담당해야 될 것이 한 390명, 나머지 지방정부가 한 4800여 명 정도를 채용해서 저희들이 12월까지 마무리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 조사의 계획은 저희들이 단순히 산출한 것이 아니라 22년부터 매년 현지 농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것을 하면서 추출된 여러 가지 산출 근거를 가지고 저희들이 마련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승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금 그런 설명들이 예산에는 반영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4800명이라는 숫자가 어디서…… 지금 처음 나왔어. 내가 물어봐도 농림부에서 답변을 안 해. 몇 명 채용하겠다는 거냐, 지자체에서 몇 명 채용하게 하겠다는 거냐…… 그리고 농관원은 사람 숫자 392명이 나오고.

모르겠어요. 지금 나누어 봐야 알겠지만 47만 필지하고 573만 필지하고의 정합성, 이 인원하고의 정합성은 어떤 수준이고 일용직이 할 수 있는 능력과 농지 필지가 얼마나 이격돼 있고 어떻게 돼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게 얼마나 반영됐는지에 대해서는 그것

을 하고 그만큼…… 지금 이 부분에 관해서는 기존에 해 오던 방식을 4배 이상의 예산을 가지고서, 예산만 보면 4배 이상을 늘리는 건데 여러분들의 계획과 생각이 제대로 되기를 희망을 합니다. 예산의 기본적인 성격에 대해서는 동의를 안 합니다마는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차관한테 이야기해서 좀 미안한데 농어촌 기본 사업에 대해서 내가 ‘문제가 많다. 문제가 많은 사업을 시범사업 하고 있으면서, 문제가 많은 사업을 했다’라고 이야기하니 ‘아무 문제 없다’……

차관님, 정말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내가 속기록 확인을 안 해 봤습시다마는 장관이 아무 문제 없다라고 상임위 본 회의 석상에서 공개적으로 국회의원을 망신 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이야기해 봐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지금 농어촌 기본소득은 매우 빠른 속도로 지역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조승환 위원** 아니, 정책이라는 게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면 부정적인 효과가 있는 거잖아!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저희들이 봤을 때는 부정적인 효과보다는 긍정적인 효과도 크다고 판단……

○**조승환 위원** 그러면 그게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정말……

○**김선교 위원** 어디 답변을 그따구로 해?

○**조승환 위원** 아니, 부정적인 효과 그것을 지적하는데 긍정적인 효과가 더 있으니까 퍼 주고 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기대했던 것은…… 농촌사회가 활성화되는 속도가 지역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승환 위원** 여보세요! 차관님! 차관님!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이야기는 문제가 너싱(nothing)이라는 의미예요. 아무 문제 없어요, 있어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조승환 위원** 아니,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고!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아니, 어떤 문제를 말씀하시는지 해 주셔야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선교 위원** 긍정적인 효과가 뭐예요? 한번 답변해 봐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를 든다면 제가 주말마다 기본소득 하는 시군을 다니고 식당도 다니고 있습니다. 갔을 때 만나 본 모든 농업인이 저에게 하는 말씀은 ‘이 사업 시작하고 나서 지역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다’ 그런 말씀을 저한테 많이 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물론 아까 전에도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사용처 부분 확대를 해 달라 이런 얘기는 나오고 있는데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지금 보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선교 위원** 차관, 퍼 주는데 싫어하는 사람 있어요? 그것을 답변이라고 하고 있어?

○**조승환 위원** 참 장차관이 다 문제구나.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부연 설명 하나 제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조승환 위원** 설명하지 마세요. 됐어요. 발언권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설명하지 말고. 위장전입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지금……

○**조승환 위원** 있나 없나만 답변해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현재까지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지급 중에서 97%만 지급하고 3%는 유보하고 있습니다.

○**조승환 위원** 증빙이 어렵고 애매하다, 기본소득 주 3일 거주, 현장 확인 이장들 비용·시간 부담, 주민 갈등, 요건 미달자 154명 부적격, 위장전입 현실화, 기본소득 지역 인구 증가 제로섬 논란, 나도 예를 들어서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 아무 문제 없다는 말이 맞아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조승환 위원** 아니,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답변하라고 그러니까 아무 문제 없다면서? 답변을 안 하잖아!

○**소위원장 송옥주** 조승환 위원님, 오늘은 추경 심사를 하는 시간이어서……

○**조승환 위원** 이것도 추경 안건이잖아요. 추경 안건인데 저런 식의 답변 태도를 가지고 있는……

○**소위원장 송옥주** 예, 말씀 잘 알겠습니다.

추가로 의견 주실 위원님 계실까요?

김선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교 위원** 차관, 7페이지에 보면 저를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160억 원 요구했어요. 정부안은 톤당 가격 인상률이 11.5%만 반영되고 물량도 3분기만 반영이 됐어요. 현재 원자재·환율 고려하면 가격 인상률이 25.7%로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또 국제 요소량 감축이 장기화될 우려가 높아지고 있고 하반기인 4분기까지 필요하다는 것이 현장의 의견입니다. 그런데 160억 원 증액 반영을 해서 했는데 이게 농림부의 의지가 있는 겁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저희들이 당초에는 위원님 말씀, 지금 현재 정부안에는 42억만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 42억을 가지고 현재 저희들이 현장에 가 봤을 때는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산을 해 보니까 3/4분기에, 3분기까지만 반영됐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당장 5월분에도 가격이 오를 상황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반영이 돼야 된다고 가정했을 때 저희들이 121억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교 위원** 그래서 이것 160억으로 수정해서 정부안 내셔도 되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김선교 위원** 그리고 13쪽, 존경하는 조승환 위원이 얘기했는데 차관이 청년 실업, 농지 조사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그것도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김선교 위원** 농지 투기 판단은 토지 취득 경위, 자금 출처, 실제 경작 여부 등 법적·행정적 판단이 요구되는 고도의 전문 업무예요. 그렇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김선교 위원** 그러니까 토지 취득 경위, 자금 출처, 실제 경작 여부 이것은 상당히 교육도 필요하고.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차관이 얘기한 대로…… 일자리, 알바 준다는 생각으로 답변을 했어요. 조사 품질 저하, 판단 오류가 우려된다는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150억 원 혈세를 막 써도 되는 겁니까? 한번 답변해 보세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장에 나가는 것은, 저희들이 단기 채용하는 것은 보조입니다. 그 사람들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은 공무원의 행위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어떻게 할 거냐면 당장 5월부터 7월까지, 기존에 있는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있고, 저희들이 드론 영상 촬영이라든가 기존 자료들을 가지고 확인이 필요한 필지를 추출합니다. 그것 추출을 하면 거기에 나가서 사진을 찍는다든가 실제 경작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조사원들이 하고 그 자료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해야 됩니다.

○**김선교 위원** 이것은 외람된 얘기 같지만 농림부가 일하는 게 성공적으로 가는 게 별로 없어요. 농업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생각하는 것은 지금 농림부 지침 내용하고는 상이합니다, 현장에 나가 보면. 그게 이해가 갑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지금 저희들이 농지 조사를 전체 거래되고 있는 농지 중 많이는 못 하고 있습니다만 거의 한 10% 정도 조사를 하고 있고 1년에 한 2500건 정도 실제로 고발도 하고 있고 과징금도 100억 정도, 조금 수치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 정도로 과징금 처분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일제 조사를 하게 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도 되고 그 부분도 일소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이것을 그냥 한 것이 아니라 21년도에 농지법 개정 이후 22년부터 꾸준히 해 오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선교 위원** 그리고 14페이지의 농어촌 기본소득도 그렇고 농지 조사도 그래요. 위원들한테 사전에 설명을 해 주고 이 예산을 이렇게 올리고, 여기 보면 야당 위원들이 낸 것은 앞의 7페이지인가 거기다 그렇고 전혀 고려가 안 됐어요.

지금 당초에는 7개 군 하려고 했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본예산에 10개 군으로 갖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그렇습니다.

○**김선교 위원** 지금 5개 군을 더 늘려 달라고 여기에 했어요. 3개 군 늘리는 것도 다…… 지역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지만 진안·무주·임실, 그렇지요? 또 2개 군 더 늘어난 것은 여기에 기재도 안 돼 있어요. 어디입니까, 2개 군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지금 기본적으로 5개는 다시 저희들이 선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선교 위원** 왜 이렇게 형편없이 자료를 내놓고…… 그러면 그 3개 군은 어떻게 해서 선정이 된 겁니까, 그런 과정 안 거치고?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260억 원 필요하시다고 제안한 사항이고요.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은……

○**김선교 위원** 아니, 이것 수용한다고 그랬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김선교 위원** 사전에 이런 중대한, 지금 얘기한 대로 정말 효과가 좋다고 그 지역에 가면…… 퍼 주는데 좋지 않은 데 있습니까? 그러면 시범사업이 왜 필요합니까, 그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제가 설명 조금만 드리겠습니다.

○**김선교 위원** 간단히 하세요, 간단히.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위원님 아시는 바와 같이 당초에 신청을 할 때 49개 군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중에 10개 군만 지금 선정이 되어 있고요.

이번에 저희들이 이 작업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지자체 수요를 받아 봤습니다. 얼마 정도 하는가 하니까 자그마치 29개 군에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본 추경안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준비가 돼 있다고, 다 해 주면 좋겠지만 준비가 돼 있다고…… 한 5개 정도 추가하면 좋겠다는 게 저희들의 생각이었고요.

위원님들께서도, 추가적으로 더 해 주면 좋겠다는 게 위원님들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말씀을 따르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지역에서는 대기가 많이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김선교 위원** 이게 말 그대로 전쟁 추경하고 정말 어떻게 연관이 되는 거예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아까 제가 현장에 갔다는 말씀 짧게 드렸습시다만, 아마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이렇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걱정하고 계시는 여러 가지 농업 생산비라든가 이런 게 올라가면 농어촌 경제가 도시에 비해서 굉장히 더 어려워질 겁니다. 그 어려워지는 농촌경제 현실을, 조금이라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교 위원** 지금 차관 영똥하게 답변하는데 현장에 나가 보면 비닐하우스, 예를 들어서 특용작물 하시는 분들 있지요? 지금 엄청나게 심각합니다. 시범사업으로 하는 데만 다니는 것 같은데 특용작물 하시는 데 한번 가 봐요, 현장. 얼마나 요구 사항이 많고 그분들을 얼마나 지원을 해 줘야 되는지. 그래요, 안 그래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이번에 추경에서 아마 비닐·면세유 이런 것들이 반영된다면 농업인한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소위원장 송옥주** 다음은 서천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천호 위원** 차관님, 장관님한테 따져야 될 일인데 차관님이 나오셔서 가지고 고생하시는데.

앞서 두 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농림부 예산 전체를 보면 추경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예산이 1294억입니다. 이게 농지 전수조사 그다음에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인데 이 예산이면 우리 농민들이 지금 꼭 필요한 무기질비료, 면세유 유가연동 증액예산이 거의 커버가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농민들이 현장에서 하루하루 필요한 예산이 있는데 왜 이 추경의 기준에도 안

맞는 예산을 이렇게 하냐는 얘기에요. 이것은 다른 의도가 있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적어도 농민들을 위하고 농촌 현실을 가장 잘 안다는 농림부만큼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공무원들 앓아 계시지만 양심이 조금씩 찢리지 않습니까? 무기질비료는 160억 증액하는 데 아주 생색을 내서 하면서 또 시설농가 면세유 유가연동은 78억을 처음 정부안에 포함시켰는데 지금 가져온 것 보니까 1305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기본소득 사업, 농지 전수조사 이게 이렇게 시급합니까? 그 예산 1294억이면 농민들이 그냥 하루하루 열심히 살 수 있도록 정책적인 예산 보전이 되는 거예요.

적어도 다른 부처, 예산처, 예산 부서는 아니더라도 우리 농정을 가장 잘 이해하고 계신 분들이 농림부 소속 공무원들 아닙니까? 그러면 애초에 이렇게 예산 편성해 오시면 안 되는 거지요.

제가 하나씩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농지 조사를 오래전부터 해 왔지요, 지방자치단체하고 협업을 해서. 그렇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그렇습니다.

○**서천호 위원** 농지 조사의 목적이 뭐니까? 투기 여부를 확인하고 근절시키는 거지요. 그렇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중요한 목적 중의 하나입니다.

○**서천호 위원** 그러면 이 농지 조사는 결국은 불법행위가 없도록 예방을 하고 또 관리하고 또 사후에 조치하는 그 기능 가지고 있는 것이 90%입니다. 그렇지요? 맞아요, 안 맞아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중요한 목적 중의……

○**서천호 위원** 중요한 목적이 아니라 대부분의 목적이지요. 그 외의 목적이 뭐가 있어요? 농지 관리, 농지 투기 예방 또 투기가 됐으면 실태조사해서 처분하는 게 농지 조사의 목적이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지금 농지를 농업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는 곳 조사하는 것 이런 것도……

○**서천호 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에 들어 있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왜 자꾸 답변을 꼬리에 꼬리를 물게끔 해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위원님.

○**서천호 위원** 그래서 이 부분 농지 조사는 그간에 지자체와 국가기관이 상시적이고 계속적으로 해 왔던 행정 업무입니다. 이 부분은 맞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그렇습니다.

○**서천호 위원** 그런데 차관님 답변을 보면 또 예산심의서를 보면 ‘일용직을 단순히 한 5100명 정도 단기 채용하겠다’ 또 그 답변 중에 ‘청년 고용문제 해소 차원에서 이 부분도 계획이 검토가 되고 이번에 예산이 편성됐다’는 부분도 설명이 됐습니다. 맞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그렇습니다.

○**서천호 위원** 그런데 앞서 존경하는 김선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농지 조사는, 내가 왜 농지 조사의 목적을 물어봤냐 하면 농지 조사는 단순한 행정 업무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아까는 또 답변 중에 ‘사실관계를 조사해 오면 그 판단은 행정공무원이 한다’고 했는데 그게 말이 안 맞잖아요. 이것 단순노무직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서천호 위원 현장 확인도 해야 되고 토지 취득 경위에 불법이 없었는지 또 실제로 지금 경작을 하는지 그리고 자금 출처는 어떻게 됐는지 이 부분을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단순 일용직을 그냥 일시에 5100명을 채용해서 그야말로 실업 구제 차원에서 하겠다, 행정절차에서 맞습니까? 안 맞잖아요. 추경예산의 지침에 맞고 안 맞고를 떠나서 행정절차에 안 맞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뒤에 앉아 계신 농림부 행정공무원들 잘 아시잖아요, 행정절차가 어떤 것인지.

또 농지 투기 문제는 근본적으로 보면, 단순히 단속을 강화해서 투기를 못 하게 한다 해서 실효성이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지금 구조적인 문제가 더 많이 있잖아요. 농지 투기 문제가 지금 농사를 짓는다 안 짓는다 그 문제에서 비롯된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물론 그것도 있겠지. 그러나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지요. 농지 제도상의 문제라든지 이용 관리의 허점이라든지 사후관리 문제라든지 우리 흔히 아는 정보 부족 문제라든지 등등 여러 이유들이 있잖아요. 구조적인 여러 사안들이 복합적으로 관계돼 있는데.

그렇다면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할 거냐. 아까 답변 보니까 22년도부터 이 계획을 수립했다는데 왜 느닷없이 추경에다 이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거예요? 22년도부터 했다면 본예산에 충분히 예산이 편성됐어야 되지요.

그러면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전문인력을 어떻게 채용하고 어떻게 교육하고 어떻게 활용할 건지 부분의 계획서를 제시하고 본예산에 집어넣어야 될 부분인데…… 전쟁 예산이라잖아요. 폭풍우라잖아요, 소나기가 아니고. 그런데 지금 다른 분야에 해야 될 일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왜 이 예산을 편성하나 이 말입니다.

다른 예산이 충분하다면 좋아요. 그런데 부족한 예산이, 지금 1400억 원이나 부족하다고 증액을 요구하면서 1200억 예산을 여기다 갖다 쏟아붓는 이유가 뭐예요? 적어도 농림부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정략적으로 또 다른 의도로 이런 요구를 하는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농정을 살피는 농림부 공무원들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소위원장 송옥주 서천호 위원님, 질문이 끝나셨을까요?

○서천호 위원 아니요, 하나 더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액 감액을 해서 실제로 유가연동 부분이라든지 무기질비료 부분이라든지 이런 데 일시적으로 좀 보태 주는 게 아니라 영농 기간 내내 불편함이 없도록, 걱정이 없도록 예산을 충당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 예산을 전액 삭감해서 그쪽에다가 증액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시작됐는데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2년 동안?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총금액은 갑자기……

○서천호 위원 그 뒤에 아시는 분 한번 말씀해 보세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1조 2000억입니다.

○서천호 위원 몇 개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1조 2000억이에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10개 지역입니다.

○임호선 위원 국비만 해야지, 국비만. 지방비 매칭된 것 빼고 해야지요.

○서천호 위원 1조 2000억이 맞아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26년도 2340억입니다.

○서천호 위원 1조 2000억 그 세입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지금 30·30·40이지요, 퍼센티지가? 그렇지요? 제가 답변하는 내용을……

차관님, 1조 2000억 예산 시범사업이잖아요. 이 시범사업이 시작된 지 두 달 됐지요. 두 달 됐는데 아주 긍정적이고 문제가 없는 사업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1조 2000억짜리 국가사업을 시행했어. 이 사업은 예비타당성도 면제가 됐어요. 걱정성만 가지고 시작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애초에 시작할 때 시범사업이 끝나고 나면 정책 평가를 해서 확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던 사업이에요. 그래서 국회에서 여러 논란이 있었지만 넘어갔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슬그머니 끼워 넣으면서 하는 얘기가 ‘다 좋아한다’, 뭘 다 좋아해요? 또 설령 담당 공무원들이 가서 확인해 보니까 다 좋아한다고 치더라도 1조 2000억 국가사업을 구두로 합니까? 평가를 그렇게 해요? 애초에 설계된 2년이 지나지도 않았지만 두 달 사업을 해서 이 사업이 좋으니까 그냥 마구잡이로 확대하자?

○소위원장 송옥주 서천호 위원님, 죄송한데요.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신 내용이랑 유사해서……

○서천호 위원 아니, 시간 제한이 있습니까?

○소위원장 송옥주 그러게요. 시간 제한이 없어서 소위가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저희 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조금만 짧게 하시고 정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서천호 위원 위원장님, 1200억 예산을 논의하는데 질의 중에 그걸 커트를 하시면 안 되지요.

○소위원장 송옥주 아니, 두 분 위원님께서 충분히 말씀하셔서 다들 이해하신 것 같아요.

○서천호 위원 질의시간을 충분히 드릴 테니까, 우리도 기다릴 테니까 좀 얘기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소위원장 송옥주 정리를 좀 하셔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천호 위원 지금 정리하고 있잖아요.

○소위원장 송옥주 저희가 시작한 지 지금 거의 두 시간 반 가까이 되어 가고 있어요.

○서천호 위원 데드라인을 정해 놓고 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소위원장 송옥주 배고프지 않으세요?

○서천호 위원 배고프시면 오후에 다시 속개하는 것으로 하시지요.

○소위원장 송옥주 알겠습니다. 그런 건 아닙니다.

정리를 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같은 얘기가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서천호 위원 같은 얘기 반복 안 했습니다, 이 부분은. 내용이 다른 부분이니까……

○소위원장 송옥주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질문 좀 해 주세요.

○서천호 위원 위원장님……

○소위원장 송옥주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서천호 위원 오후에 속개하시든지요, 식사하시고.

○소위원장 송옥주 말씀하세요.

○서천호 위원 1조 2000억 사업 예산을 이런 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평가하고 또 확대 하겠다. 앞서 위원님들이 질문했는데 보니까 어떤 효과가, 정책 평가를 하셨어요? 그것부터 한번 물어봅시다. 정책 평가를 하셨어요? 두 달간 정책 평가를 하셨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서천호 위원 그러면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정책 평가도 안 했는데 다 하니까 좋아하더라…… 내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설령 전 농민이, 전 국민이 좋아하더라도 냉정한 평가를 해야 돼요.

평가 틀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평가 틀은 있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있습니다.

○서천호 위원 어디서 만들었어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지금 경사연하고 저희들이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승환 위원 평가 틀 보고해 주세요.

○서천호 위원 평가 틀을 한번 제출해 주세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해 주시고.

그래도 지금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게, 언론에서 문제 제기를 했잖아요. 위장전입 우려가 현실화돼 있다, 요건이 미달돼서 인접 지역 주민들을 뺏어 왔다, 농어촌 기본소득 전입부터 색출해야 된다, 증빙이 어렵고 애매하다, 주 3일 근무자 늘어난다, 이게 도마 위에 올라와 있다, 이게 전부 다 언론에서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 시각부터 잘못된 시각이고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예산을 다시 거론하지요. 지난 3월 기준으로 해서 보면 지방비·도비를 모두 확보한 곳이 몇 곳입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

○서천호 위원 전액 확보한 곳이 한 군데밖에 없어요. 연천 하나밖에 없어요. 그 내용도 지금 정확하게 평가가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시행된 지가 두 달이 지났는데 도비·지방비를 전부 확보한 대상 지역이 연천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 기초적인 자료 분석·평가도 안 하면서 이 정책이 좋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런 인식을 농림부에서 가진다는 것 자체가 출발선상부터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제가 인구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남해가 지난 9월부터 해서 한 1700명 정도 인구 증가가 됐어요. 그런데 인접해 있는 하동·사천이 780명 감소됐습니다. 전입을 한 겁니다, 남해로. 그러면 하동이나 사천은 인구소멸지역이 아닙니까? 차관님, 소멸지역이지요? 소멸지역이에요.

전남 신안 같은 경우에는 3000명이 증가됐어요. 옆에 목포에서 3300명이 감소됐습니다. 청양, 경북 영양 똑같은 추세입니다. 윗돌 빼 가지고 아랫돌을 꺾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정책이 평가를 해서 정말 정책적인 효과가 크다고 결론이 나면 저는 전국적으로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대충대충 추정에 얹어서 할 일이 아니라는 거지요.

왜 그러냐? 상대적으로 인구소멸지역이 전국에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포함이 안 된, 선정이 안 된 지역은 왜 선정을 안 하는 거예요, 어떤 기준으로? 그렇게 정책적인 효과가 좋다면 다 해야지. 그렇잖아요.

또 예산 문제를 거론하겠지요. 국가 예산이 그 정도로 충분치 않다, 충분치 않다는 건 시범 운영할 때부터 충분치 않습니다. 왜? 아까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도비·군비가 확보된 지역이 한 군데밖에 없다고.

이런 정책을 추진하는 것부터 처음에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그러면 2년 시범 운영 다음에 평가를 한다고 했지만 6개월 내지 1년이 지나서 ‘해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긍정적인 효과가 있고 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완해서 확대하겠습니다’라고 적어도 우리 상임위에는 보고를 하고 해야지요.

○소위원장 송옥주 서천호 위원님, 좀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서천호 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안 하잖아요, 대신에. 마무리할게요.

○문금주 위원 아니, 그런데 혼자 너무 많이 시간을 차지해 버려요.

○서천호 위원 마무리할게요. 마무리할게요, 문금주 위원님이 시비를 걸어서.

○소위원장 송옥주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차관을 비롯해서 충분히 다 이해를 한 것 같아요.

○조승환 위원 아니, 그런데 위원장님, 차관의 답변 태도에 대해서는…… 사과해 주세요. 지금도 태도가 계속 말꼬리 있게 만들고.

○문금주 위원 제가 대신 사과할게요.

○서천호 위원 차관님, 그래서 제가 결론을 냅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706억 또 농지이용 관리지원(농지 전수조사) 588억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림부 간부들이 나서서라도 이를 전액 삭감해야 됩니다. 삭감해서, 이 예산을 그냥 삭감하자는 게 아니라 지금 증액을 요구한 1465억 있잖아요. 이쪽으로 돌려요. 그래야 농민들이 편하게 농정을 할 수 있잖아요. 기름값 걱정 안 하고 비료 걱정 안 하고 할 수 있는 그 예산에다가 이걸 충당해야지, 왜 여기다 하나는 많은 논란이 있는데.

차관님, 이거 조치 좀 해 주세요, 검토를 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위원님, 제가 짧게 부연 설명드릴 게 하나 있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서천호 위원 그러면 내가 다시 질문해야 돼요. 한번 해 보세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다른 문제보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구 문제 부분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인접 지역에서 분명히 전입된 것도 상당 부분 있습니다. 있지만 저희들이 원래 생각했던 것처럼 수도권이라든가 인근 대도시에서도……

○서천호 위원 내가 그 이야기 나올 것 같아서 자료 가지고 왔어요. 답변을……

○소위원장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위원님들은 한 분도 질의를 안 하셨는데 한 분한테만 기회를 드리고 마무리할까 합니다.

○서천호 위원 아니아니, 왜냐하면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소위원장 송옥주 우리 위원님 말씀은 다 이해하고 그 부분에 대한 취지가 전부 다 설득이 된 것 같아요.

○서천호 위원 아니, 취지가 문제가 아니고.

차관님, 아까 조승환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게 제도도 완벽하지 않잖아요. 데이터도 완벽하지 않잖아요. 또 정책 평가 한 부분도 지금 가서 구두로 물어본 겁니다. 인구 이동도 마찬가지예요. 인구 이동이 예를 들어서 대상지역에 100명이 전입을 했다고 했는데 100명 중에 80명만 인접지역이고 20명은 다른 지역에서 전입을 했기 때문에 인접한 인구소멸지역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렇게 주장하면 안 돼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제가 그 말씀……

○서천호 위원 그렇잖아요. 물론 서울에서도 가고 부산에서도 가고 하겠지요, 광주에서도 가고. 그러나 대부분 인접지역에서 많이 간다는 겁니다. 내가 데이터를 제시할까요? 그래서 그런 논리로 접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답변도 마찬가지고.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제가……

○서천호 위원 차관님, 그러면 산회하고 다시 합니다, 산회할 권한도 내가 있지도 않지만. 많은 문제들이 포함돼 있잖아요. 언론에서 지금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문제를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를 해서 ‘이렇게 이렇게 보완해 나갑니다’ 또 두 달이 됐든 2주가 됐든 ‘정책 평가를 해 보니까 이러이러한 긍정적인 효과가 있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라고 당연히 이야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임위가 그냥 핫바지예요?

○소위원장 송옥주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농어촌 기본소득과 관련된 부분은 시범사업입니다. 그렇지요? 지금 추진한 부분들이 얼마 안 돼서 긍·부정에 대해서 하나를 확실하게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기기는 하지만 언론에 보도된 부분도 사실은 문제점이기는 한 부분들이어서 그 부분들에 대한 추진 과정 그런 부분들을 잘 점검한 후에 여기 위원님들께 개별적으로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관님, 그러실 거예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송옥주 알겠습니다.

서천호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소위원장 송옥주 뒤에 계신 우리 공무원들도 취지를 다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임호선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손 드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금주 위원 저도 할 말이……

○소위원장 송옥주 아, 문금주 위원님이 사실 먼저 손 들었는데.

○문금주 위원 우리 존경하는 야당 위원님들이 말씀을 주셨는데 일단 질의시간을 너무 많이 차지한 게 좀 문제인 것 같고요. 그리고 농어촌 기본소득에 대해서 아직 평가가 안

됐기 때문에 그거를 주먹구구식이니 대충이니 이런 식의 표현을 쓰는 것에 대해서는 정책을 하는 우리 농림부 공직자들도 좀 자존심이 상할 문제고 또 이게 21대 대선 공약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우리 민주당에 기본사회위원회도 있는 것이고 이미 검증된 부분도 좀 있어요.

그리고 저희 지역구에 가면, 모르겠어요. 우리 존경하는 서천호 위원님 지역구는 잘 살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희 지역구 고보장강, 고흥·보성·장흥·강진은 군수를 비롯해서 의원들도 그렇고 전부 다 지금 농어촌 기본소득에 대한 공약들을 내걸고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저는 재정 생각하면서도, 전부 다 공약을 내걸고 있기 때문에 솔직히 저는 건의를 하고 싶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다만 장관님이 전체회의 때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약간 어폐가 있었던 것 같고 그 부분은 저도 농해수위 위원으로서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문제들을 점차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면서 보완을 해 나가면 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고요.

차관님, 아무 문제없다라고 얘기를 하지 마시고 그런 부정적인 부분, 부작용들도 분명히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보완·개선해 나갈 그런 마음으로 좀 임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적극적으로 저희 노력을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송옥주** 임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천호 위원** 위원장님, 존경하는 문금주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조금……

○**문금주 위원** 충분히 하셨잖아요.

○**소위원장 송옥주** 다 이해를 했어요.

○**서천호 위원** 1분만 할게요.

○**소위원장 송옥주** 우리 임호선 위원님이 오래 기다리셨어요.

○**서천호 위원** 하세요.

○**임호선 위원** 짧게 그냥 제 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지이용 관리지원사업, 우리 소위에서의 증액 의견에는 반대고요. 정부 원안 유지인데 이거는 야당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맞습니다. 이게 본예산에 담겨야 될 사업인데 지금 급하게 이루어져야 될 필요성 때문에 추경에 반영돼야 된다면 야당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그 취지와 목적 또 부작용 방지 대책까지를 포함해서 부처에서 충분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소득 관련해 가지고 우리 소위에서의 증액 의견에는 반대합니다. 추경편성에 포함된 706억에 대해서는 감액 의견 냅니다. 6개월분인데 6개월분 집행이 어렵습니다. 나중에 소급해서 집행을 한다 하더라도 6개월까지는 어려울 것 같고 4개월, 9·10·11·12월 정도의 예산만 담겨야 된다고 하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 우리 소위에서의 증액 의견에는 반대합니다. 원안 유지를 해야 된다면 전통시장 부분에 할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부 내역을 조정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송옥주 임호선 위원님께서 새로운 제안을 하셨는데 우리 차관님 혹시 의견 있으면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농지 조사 부분은 저희들이 임호선 위원님 안을 수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농어촌 기본소득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저희들이 해 봤을 때 우려하시는…… 6개월 집행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은 6개월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농식품소비 기반 관련해서 할인지원사업은 저희들이 예산 반영해 주시면 전통시장 부분은 여기서 전통시장 부분만 따로 추출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위원님의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을 설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송옥주 더 이상 위원님들 말씀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임미애 위원님, 있으세요?

○임미애 위원 하면 길 것 같아서 안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송옥주 다른 위원님들이 하신 거랑 내용 유사하시지요?

○임미애 위원 예.

○소위원장 송옥주 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논의한 부분들을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7페이지의 7-1번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 지원과 관련된 거는 160억 원으로 수정 수용하시기로 하신 거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송옥주 그리고 13페이지의 농지이용 관리지원 1-1번 이거는 증액을 안 하시고 당초의 추경예산안대로 반영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신 거고요.

14페이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원래 수용하시기로 한 706억 3000만 원 증액을 하겠다고 말씀하신 거고요.

농식품소비 기반조성 관련된 부분은 전통시장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대책과 개선안을 마련을 한 후에 이 증액한 만큼 추진을 하겠다 그 말씀이신 거지요?

○문금주 위원 그걸 부대의견을 달면 될 것 같은데요.

○소위원장 송옥주 부대의견에 이미 있기는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있습니다.

○문금주 위원 그러면 됐지요.

○소위원장 송옥주 그 부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마련을 하셔서 우리 위원님들께 보고를 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그리고 위원장님, 제가 아까 말씀 못 드린 게 있는데 12쪽의 농업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이 26억 9500하고 15억이 있는데 저희들은 26억 9500으로 반영되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송옥주 몇 페이지라고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12쪽입니다.

○소위원장 송옥주 그건 그대로 돼 있습니다.

○임호선 위원 위원장님.

○소위원장 송옥주 임호선 위원님.

○임호선 위원 15쪽,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 원안 유지 의견을 드렸습니다. 우리 소위에서의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소위원장 송옥주 농식품부하고 의견이 좀 다르신 거지요? 농식품부는 증액으로 해 놓고 거기에 대해서 전통시장이나, 부대의견으로 충분히 담겠다는 의견이신 것 같아요.

○임호선 위원 차관님, 본예산에 1227억 담겨 있어요. 아시잖아요. 1분기 지났습니다. 지금 실행행렬 얼마 돼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580억 집행됐습니다.

○임호선 위원 많이 하셨네요. 이게 코로나 때 급조돼서 들어간 예산이에요. 이런 식으로 가는 건 맞지 않습니다. 이거 사실은 국감 때 또 여러 위원님들이 다들 텐데 여기서 할인지원 사업을 700억 증액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고 500억으로 원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 소위에서의 증액 의견에 대해서는 반대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송옥주 임호선 위원님, 제가 한말씀만 드리면 사실은 미국과 이란의 전쟁과 관련된 부분들로 단순히 유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피해가 농어촌과 소비자와 국민들에게도 막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4월에서 팔구 월까지는 물가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국민들의 민생과 경제적인 어려움이 상당히 큰 걸로 알고 있어서……

○임호선 위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소위원장 송옥주 농식품부에서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좀 낸 것 같아요. 그래서 부대의견에 있는 전통시장이나 대형마트에 집중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마련해서 별도로 보고하는 선에서 이 부분들을 좀 수용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임호선 위원 그러면 증액 700억인데 이게……

○임미애 위원 아니, 500억. 원래 안은 500억……

○임호선 위원 원래 안은 500억인데 추가로 700억을 더 담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말이 돼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소비가 좀 줄어든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농산물 가격도 좀 다운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저희 우려 사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임호선 위원 그러면 줄여요. 정 담아야 된다면 줄이십시오.

○소위원장 송옥주 차관님, 혹시 의견 있으세요?

임호선 위원님이 강하게 말씀을 하시네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추가 700억이라는 것이 작년 예산 수준을 반영시키면 추가 700억 정도 되는 수준입니다. 저희들은 전체적으로는, 작년에도 이게 추경에서 반영이 되었고요. 그래서 작년 수준 정도 되면 좋겠다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소위원장 송옥주 우리 농식품부차관님과 공무원들의 여러 가지 고민들이 좀 녹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임호선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이거를 증액 처리를 하고 예결위라든지 본회의의 과정이 남아 있기 때문에 저희는 농식품부의 의견 부분 또 우리 소비자와 농어민을 위해서 이 추경이 편성된 부분에 대한 취지를 좀 살렸으면 좋겠습니다.

양해 좀 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부대의견 12번이 있습니다. 자료를 배포해 드렸는데요. 조금 전에 얘기한 촉발기금 관련된 내용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2026년 농가사료 직거래 활성화 신규 사료 구매자금 용자와 이차보전 금리를 1.8%에서 1.0%로 인하한다’라는 내용입니다.

별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3항 및 4항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2026년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지금까지 심사하여 조정한 대로 수정 의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하며 농업용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한시지원 등 12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부대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부적인 자구와 금액 등의 사항에 대해서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차관님 그동안 수고하셨는데 말씀 한번 주세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존경하는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송옥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26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시고 의결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일 소위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중동전쟁에 따른 농업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을 반영하여 최대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심의 과정에서 위원들께서 주신 고견은 앞으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데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송옥주** 우리 김종구 차관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사항의 자구와 금액 등의 정리에 대해서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모두들 수고 많으셨고요.

위원회 직원 또 보좌직원 여러분 그리고 정부 측 관계자 여러분 모두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4분 산회)

○출석 위원(8인)

김선교 문금주 서천호 송옥주 이원택 임미애 임호선 조승환

○청가 위원(1인)

박준태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정은
전문위원 김성완
전문위원 이현중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김종구
정책기획관 홍인기

해양수산부
차관 김성범
정책기획관 이상호

산림청
청장 박은식
기획조정관 이종수
산림산업정책국장 이상익
산림재난통제관 이용권

해양경찰청
차장 장인식
기획조정관 임명길
장비기술국장 이원재

위원회 회의록